



## 미주동창회-지부 회장들 ‘정기 줌 미팅’ 연다

### 6월 평의원회의 역대 최다 9명 참석 교류 강화, 젊은 동문 영입 방안 논의 지부 지원 고문 신설, 협력의장 마련

지난 6월 20일~22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제 34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는 각 지부 동창회장들이 별도의 모임을 갖고 지부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미주동창회와 지부의 보다 활발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부 회장 모임에는 9명의 지부 동창회장과 1명의 회장 대행이 참석했는데 매년 열리는 평의원회의에 지부 회장이 10명

가까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지부와와의 소통과 교류에 역점을 두겠다는 18대 미주동창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남가주 채규환(법대 69) 회장을 비롯해 북가주 김범섭(공대 79), 워싱턴 DC 남옥현(경영대 84), 시카고 정성일(공대 86), 조지아주 최화진(음대 85), 미시간주 이광진(공대 81), 커네티컷주 박성훈(자연대 91), 하트랜드 이주현(미대 92), 미네소타주 문성인(공대 88) 회장과 오하이오주

김용현(경영대 66) 동문이 회장 대행으로 참석, 차기 19대 미주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워싱턴 DC의 박상근(법대 75) 동문도 자리를 함께 했다.

모임에서 ▲각 지부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정기적인 지부장 줌 미팅 개최 ▲젊은 동문 영입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지부 현황 설문조사는 18대 미주동창회에서 신설된 지부 지원 담당 고문 문성인 미네소타 지부 회장이 주도해 각 지부에 설문지를 보냈으며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8월 중순경 1차 지부장 줌 미팅을 열 계획이다.

동창회 최대 숙제인 젊은 동문 영입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

#### 설문내용

- 지부 창립연도 일자
- 파악된 인원수와 평균 참석인원수
- OB와 YM 비율, 구분기준
- 운영비 모금 방법, 이사회비, 연회비, 기부
- 중요행사 및 참가비 여부
- 장학사업 여부
- 젊은 동문을 위한 별도 모임

는데 젊은 동문들의 관심사인 경력 개발과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구체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관계기사=7면>

## 남가주 동창회 ‘자체 사무실’ 마련

### 건물주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무상 임대

#### 9월 초 오픈하우스

남가주 총동창회가 오랜 숙원이던 자체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무실은 LA 한인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세리토스에 위치해 있다. 동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미라다, 부에나팍, 풀러튼, 어바인 등과도 가까워 동창회 활동의 거점으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차 공간도 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김종섭 한국 총동창회장으로, 김 회장은 이 건물을 자신의 기업 미주본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는데 2층 거의 전체를 동창회에 무상으로 임대해 동문들의 활동 공간으로 내어주었다.

사무실은 대회의실 2개와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각종 회의와 세미나는 물론 동호회 활동과 단과대별 모임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홈리스’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 자체 사무공간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내부 공사를 마친 뒤, 9월 초 오픈하우스를 열고 공식적으로 새 사무실을 소개할 계획이다.

▶문의: 818-4897892(채규환 동창회장) / 714-335-2148(양수진 차기회장)

## “종신이사, 우리부터 동참해야죠”

### 18대 박현아 사무총장 · 문성인 고문 부부 가입

지난 7월 출범한 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박현아(공대 88) 동문과 미네소타 지부 회장으로 지부 지원 담당 고문을 맡은 문성인(공대 88) 동문 부부가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센추리 펀드에 각각 3000불씩을 후원해 종신이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사무총장은 “동창회 일을 하면서 여러 지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많은 동문님들을 만나 기쁘고 감사하다”며 “저희 부부도 동창회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으로 종신 이사 회원이 됐다”고 전했다.

18대 출범을 축하하는 뜻에서 뉴욕 지역 동창회장을 지낸 강 에드워드(사대 60) 동문이 기존 종신이사에서 골드이사로 업그레이드 했다.



황효숙(가운데) 미주동창회장에게 종신이사 가입비를 전달한 박현아-문성인 동문 부부

미네소타 동창회의 대부인 김권식(공대 61) 동문은 미주동창회 운영을 위한 일반 후원금으로 5만 불을 전달했다. <관계기사=2면>

#### 미주동창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동창회보 구독자님들께서 동문 지인 중 아직 동창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께 다음 달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우, QR 코드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 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contact@snuaa.org) 또는 미주동창회 주소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권식 동문, 황효숙 회장에 5만 달러 통 큰 후원

미네소타 동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네소타 동창회의 대부' 김권식(공대 61) 동문이 18대 미주동창회장 임기를 시작한 황효숙(사대 65) 회장에게 통 큰 취임 축하 선물을 했다.

후원금 5만 달러. 그것도 황 회장이라면 필요한 곳에 잘 쓸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무 조건없이 기부한 돈이다. "2년 전 황 회장이 차기 미주동창회장으로 선출됐을 때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 뜻에 따라 취임 직후 전달했습니다."

황 회장은 김권식 동문과 그의 부인 고 황성숙 여사를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한다. 지난 2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황 여사와 김 동문은 평의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18대 회장단을 도왔고 황 회장은 준비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황 여사의 묘소를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나누며 위로와 지혜를 얻곤 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분이셨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그립습니다."

황 회장은 동창회뿐 아니라 미네소타 한인사회와 주류 사회에 있는 여러 비영리단체 봉사 활동도 김권식 동문 부부와 함께 해왔다.

2020년 황 회장이 미네소타 한인 회장을 맡았을 때도 김 동문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당시 미네소타는 백인 경찰의 무도한 폭력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상관 없는 한인 상점들까지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었다. 그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지원을 안내하며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두 동문이 호흡을 맞춘 리더십 덕분이었다.

실내악 전문 연주와 교육 비영리단체인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오브 미네소타'에서 이사장과 이사로 함께 봉사해온 지도 십수년. 뜬금없다는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만나 노래를 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같은 교회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해도 항상 잘해왔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 전임 회장과 후임 회장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19대 차기 회장과는 잘 협력해 미주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의 당부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동창회'가 18대의 최대 과제인데 김 동문이 바로 태양광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



왼쪽 사진은 황효숙(가운데) 미주동창회장과 김권식 동문 부부. 김권식 동문의 표정 만으로도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느껴진다.(오른쪽 사진)

음악 · 사회단체 봉사 함께 하며 십 수년 인연

“황 회장이라면 동창회 필요한 곳에 잘 쓸 것”

미국 톱 5 태양광 기업으로 지속가능 미래 설계

“미주동창회도 든든한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길”

들어 온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김 동문이 이끄는 EVS는 2023년 미국 전체 태양광 설치량의 10분의 1을 차지하며 태양광과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상위 5위권에 드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다. 직원 수는 230 명으로 많지 않지만 대기업 부럽지 않은 급여와 혜택, 근무환경 덕분에 2017년 미니아폴리스 / 세인트폴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혔다. 이는 동문회의 토대가 '사람'이듯이 기업 경영에서도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천해온 김 동문의 철학 덕이 크다.

황효숙 회장은 “워낙 금슬이 좋고

서로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이라 사모님이 떠나신 후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그 슬픈 날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미네소타 동문들이 푹푹 뭉쳐 미주동창회를 돕는 것도 김 회장님 같은 대선배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전날에도 김 권식 동문은 회사 아침 회의를 마친 후 이(e)바이크를 타고 공원과 호숫가를 따라 50km, 3시간을 달렸다. 자전거 타기는 그가 오랜 시간 즐겨



김권식 동문(맨 오른쪽)은 지난해 공대 동창으로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주동명 동문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약 400km 를 자전거로 달렸다.

운 취미이자 일상의 사색 시간이다. 80세가 되던 2023년에는 10월 3일부터 9일간 서울대 동문 친구들과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DMZ 전 구간 약 400km를 자전거로 달렸다.

며칠 전에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오보에 레슨도 받았다. 아내와 함께 35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아왔고 오보에는 8년을 배웠는데 혼자서 레슨을 받으며 눈물이 흘렀지만 오보에를 불며 남은 날들도 음악처럼 아름답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동문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한국에 패밀리 비즈니스 센터를 만드는 일이다. 역시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일인데 이를 위해 몇 달 전 한국을 다녀왔다. “중소 규모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 승계 · 리더십에 관한 연구와 교육,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관인데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아내가 졸업한 이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999년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서너 명을 교환학생으로 초청해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며 미국 문화를 체험케 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에 갈 때마다 멘토링 강연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과 배운 교훈을 들려줬다.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외에도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미네소타대 미술박물관 이사 그리고 패밀리 비즈니스 센터 건립까지 쉽없이 이어지는 그의 사회 문화 봉사활동의 끝은 어디일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요. 물론 보람도 있고,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요. 시간, 건강,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내는 든든한 후원자들, 휴가 중에도 동창회 일을 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 미래를 고민하는 집행부의 젊은 후배들, 이런 모습을 보며 18대 황효숙 회장이 이끄는 미주동창회에 한층 더 큰 기대를 하게 된다.

미주동창회 산하 29개 지부 동창회장들의 임기는 지부마다 다르다. 많은 지부가 1, 2월에 신임 회장 임기를 시작하지만 뉴욕,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미시간 지부는 6월말 정기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미주동창회와 회기를 맞춘 것이다. 뉴욕,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가 새 회장을 맞았고 미시간은 임기 2년으로 지난해 연임한 이광진(공대 81) 회장이 올해도 계속 봉사한다. 지부 신임 회장을 소개한다.

## “동창회에 애착 커 … 80 학번 이후 모임 활성화 할 것”

### 뉴욕 동창회 47대 회장 김병순 (사회대 경제학과 82)

김병순(사회대 경제학과 82) 뉴욕 동창회 신임 회장은 동창회를 사랑하는 동창회 일꾼이다.

한국에서도 경제학과 동기 모임에 참석하면서 동창회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고 직장이었던 한국산업은행에서 보내준 조지 워싱턴 대학 MBA 과정을 공부하는 와중에도 워싱턴 DC의 동창회에 참석했다. 2010년 미국으로 이민와 뉴욕에 자리잡으면서는 동창회 모임 참석을 넘어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에 입회해 뉴스레터 편집위원과 골프 총무, 사무총장 등 여러 일을 하면서 연세 드신 선배님들을 깎듯하게 모셨다.

김병순 신임 회장은 “80년대 학번으로 동창회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문이 많지 않아 선배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며 “선배님들이 훌륭하게 이어온 전통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병순 회장은 “연간 2회에 걸쳐 행해온 골프대회와 피크닉 그리고 연말 송년회와 같은 기존의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는 것은 기본이고 80년대 학번 이후 동문 모임인 관악클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총동창회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사업”이라며 “2000년대



뉴욕동창회 관악클럽은 과거에도 모임 결성 노력이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아 명맥을 잇지 못하다 시니어 모임인 골든클럽 선배들의 후원으로 지난 5월 다시 모임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병순 회장은 “아직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장로직분을 감당하고 있어 바쁘긴 하지만 제가 동문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섬기는 마음으로 동창회장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순 회장은 뉴욕주와 뉴저지주 CPA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개인 CPA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번 이후 동문들도 현재 카톡 등으로 소극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 예술 활동 즐기며 소통하는 동창회 만들 것”

### 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영석 (음대 74) 신임 회장

필라델피아 김영석(음대 74) 신임 회장은 지역 동문 단체 카톡방에 취임 인사말을 올렸다. 김영석 회장은 한인 언론에 음악과 문화에 대한 글을 꾸준히 기고해온 문화 예술 칼럼니스트로 그의 취임 인사를 그대로 전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대 동창회 필라 지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서울음대 74학번 김영석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70세 까지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는 저의 인생에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준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큰 힘을 얻어 선후배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유학생이나 재학생

들이 졸업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문회, 나아가 지역사회에 선 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여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드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 동문 모두가 모교에 대한 애정과 동문회에 대한 참여 의식을 가지시고 동문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 동문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독려하시어 동문회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가장 근본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풍요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술 활동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



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하는 후배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석사, 그리고 University of Miami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후 Mansfield University에서 33년간 성악과 Musical Theater & Opera 담당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저는 임기 내내 우리 동문회가 이러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함께 모이고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유익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문회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심희진 전임회

참고로 김영석 회장은 테너 솔리스트로 한국에서도 자주 초청 공연을 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다수의 합창단을 객원 지휘해 뮤지컬과 오페라로 꾸며진 콘서트를 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사이버 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북미 한인교수협의회(KAUPA) 부회장을 역임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문들이 관심 갖고 참여만 해도 반 이상은 성공”

## 뉴욕 강 에드워드 동문, 1 만불 골드이사로 업그레이드·후원금도 보내

뉴욕 지역 동창회장을 지낸 강 에드워드(사대 60) 동문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황효숙(사대 65) 제 18 대 미주동창회장이 성공적으로 미주동창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축하 선물을 보냈다.

미주동창회 발전기금 센추리 펀드에 7000달러를 후원해 기존 종신이사에서 골드이사로 업그레이드했으며 동창회비 2년치를 포함해 900달러를 후원했다.

뉴욕 동창회 창립 멤버인 강 동문은 32대 뉴욕 동창회장을 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2012년 임광수 서울대 총동창회장님이 마포에 동창회관을 건립한다고 해 뉴욕 동문 130명이 1인당 100불씩 1만 3000불 그리고 제가 1만불을 보태 2만 3000불을 보내 동창회관 로비 벽 동판에 뉴욕 동문들 이름을 새겼다”며 “그때 이준행 선배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동창회는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만 해도 반 이상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동문은 또 “그 당시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 고심 끝에 혼자서 아는 동문 하나 없는 컬럼비아 대학을 찾아가 서울대 출신 학생을 만나 동창회를 알리고 맨해튼에 있는 좋은 식당으로 초청했더니 40명이 참석했다”며 “그것이 뉴욕 지역 관악회의 시작으로 젊은 동문들이 서로 연락해 몇 년 동안은 150여명까지 늘어나 보람을 느꼈는데 계속 관리를 못해 흐지부지 흩어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강 동문은 2017년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따 설립한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 운영과 봉사활동을 하느라 지금도 현업에 있을 때 못지 않게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 2025년도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을 단체를 선정하는 일을 마무리했다. 설립 이후 9년 동안 장학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따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을 세운 강 에드워드 동문 부부

스러울 땐 왜 이 일을 하는지 자문할 때도 생깁니다. 하지만 장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문 분야로 진출해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한인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이 그의 자선활동의 중심축이라면 다른 한 축에는 재능있는 젊은 한인 음악인들의 미국 데뷔를 돕는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KMF)이 있다. 강 동문은 2024년부터 KMF 이사장을 맡아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손민수, 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부문에서 역시 한국인 처음 우승한 최하영의 카네기홀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사무실은 성공적으로 발전했고 그는 2011년 일찌감치 은퇴했다.

슬하에 1남 1녀 그리고 며느리, 사위도 남들이 부러워할 자랑거리다. 강 동문은 쓰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미국사회 리더로 자리잡은 동문 자녀들을 인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미주동창회로선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 동문의 딸 미셸 강 김은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의대를 나와 현재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소화기내과·간질환·영양학과 과장(Chair of the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을 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최초의 여성 과장이며 다양한 강연 및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의료분야 차세대 리더로 손꼽히고 있다.

사위 마이클 김은 연방 검사 출신으로 국제 소송과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로펌 ‘코브레 & 김’의 공동 창업자다. 아들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로펌을 차렸고 며느리는 컬럼비아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부과장을 맡고 있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공부할 때 여름방학에는 기숙사를 닫으니까 지낼 곳을 찾아야 했는데 교회에서 알게된 미국인 부부가 3베드룸인데도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해 세끼 먹이고 재워줬어요. 뉴욕에 와서 직장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부부를 초청해 일주일동안 모시며 관광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에게서 나눔을 배웠고 적든 많은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뉴욕 동창회장, 뉴욕 한인사회 리더, 자선재단 설립 등으로 나눔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해 온 강 에드워드 동문이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기치로 내세운 미네소타의 황효숙 회장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18대 미주동창회는 이미 성공을 향한 2년 여정에서 백보는 내디딘 것이 아닐까.

뉴욕 동창회 창립 멤버로 제 32대 동창회장 역임  
CPA 은퇴 후 자선재단 운영하며 나눔·봉사의 삶  
지난 9년간 장학생 100명 포함 총 75만불 후원  
KMF 이사장으로 유망 한인 음악인 미국 데뷔시켜

생 1인당 5000불, 특별 장학생 2500불씩 장학금을 준 학생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 올해는 한국 두레마을 학교에도 5000불을 후원했다. 장학생 외에 슬론 케터링 메모리얼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줄리어드 음악학교,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 예일대 등 단체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75만불을 후원했다. 그것도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후원금 액수보다 더 놀라운 건, 강 동문이 직접 혼자서 50명이 넘는 지원생들이 보내온 서류 일체를 검토해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매년 장학생을 결정할 때면 혼자 그 여러 종류의 서류를 읽고 정리하고 학생들과 연락하는데 정말 고생

“사실 카네기 쟂킨홀을 대관해서 객석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드아웃시켰습니다. 보람이 크죠. 서울대 동문인 정경희 후배가 KMF 회장을 맡아 다른 이사들과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그저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듣다보니 강 동문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하면 할수록 복이 온다’는 말처럼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활한다는, 삶에 대한 그의 자세와 가치관 덕분일까.

강 동문은 1968년 단돈 1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 와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회계학 석사를 마치고 석유기업 텍사코에서 10여년을 일한 뒤 1982년 뉴욕 맨해튼에



(왼쪽부터) 강 에드워드 동문이 뉴욕 지역 동창회장일때 출범시킨 2011년 관악회 첫 모임에 모인 젊은 동문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씨가 연주하기 전 카네기홀 밖 포스터 앞에서 표가 매진되어 기뻐하고 있다. 2017년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 창립 첫해 장학금 수여 행사 모습.



뉴욕 골든클럽이 그동안 제작한 뉴스레터들

## 뉴욕 골든클럽의 자랑 ‘매달 8 페이지 뉴스레터’

놀랐다. 매달 8 페이지의 뉴스레터를 만들어 회원 110 명에게 발송하는데 가장 최근에 보낸 7월호가 무려 159 호다. 2010년 4월 처음 발간해 초창기에는 서너달에 한번씩 만들다 2015년쯤부터 매달 발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한번 놀랐다. 내용이 다양하고 알차다. 매달 있는 동창회 행사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조언이 담긴 원로 동문 인터뷰, 동문 여행기, 건강 관련 기고문, 심지어 ‘노년의 황금기, 재능기부로 빛내세요!’라는 타이틀을 달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실질적인 기관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뉴욕 동창회 시니어들의 모임인 골든클럽(회장 김정필)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이야기다.

편집위원은 8명.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줌으로 만나 뉴스레터를 어떻게 채울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나눈다. 발행인 겸 편집장, 기자, 디자이너, 인쇄까지 맡고 있는 ‘만능 플레이어’ 김정필(공대 71) 골든클럽 회장을 포함해 2010년 창간 주역으로 지금까지 15년 ‘명예 기자’로 뛰어난 홍종만(공대 64) 상임고문, 뉴욕 동창회의 산증인이자 큰 어른인 정해민(법대 55) 상임고문 그리고 이영범 금영천 부회장, 김병순 사무총장, 강교숙, 여주영 동문이 뉴스레터를 위해 수고하는 편집위원들이다.

“골든클럽이 채 20명이 안되는 회원으로 출범했는데 110명으로 늘고 매달 두 차례 정기모임을 가질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동문들이 더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필 회장은 “특히 몸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 모임에 나오기 힘든 원로 선배님들이 뉴스레터가 오기를 기다리시고 동문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신다”며 “뉴스레터에 대한 동문들의 애착을 알고 있기에 편집위원들은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4월 처음 발간해 7월 159호까지 내 동문 110명에게 우편 발송하며 유대감 다져 편집위원 8명, 매주 금요일 줌미팅하며 회의 김정필 회장, 인디자인으로 편집해 인쇄까지

김정필 회장은 2018년부터 뉴스레터팀에 합류했다. 공대 출신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KEI USA Inc) 대표인 그가 지난 7년여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뉴스레터를 편집하고 글을 쓰고 멋진 타이틀까지 붙이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했다. “중고등학생때는 교내 회지를 만들었고 교회에서는 편집일 봉사를

했는데 그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AI 덕분에 뉴스레터를 좀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검색해서 써머리를 해주니까 읽고 수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어 일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김 회장에게 제작 과정 얘기를 듣다보니 편집위원 여덟분의 열과 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창간 주역 홍종만 상임고문은 뛰어난 인품과 특

유의 친화력으로 동문 소식을 알아 오고 기고를 부탁하고 글도 쓴다. 그렇게 쓴 글과 받아온 기고, 사진들은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차곡차곡 쌓이고 편집위원들은 수시로 폴더에 들어가 미리미리 교정을 본다. 김정필 회장이 인디자인으로 만든 PDF 초판을 올리면 여럿이 보면서 기사의 위치를 바꾸고 사진을 더 크게 하기도 하면서 동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뉴스레터로 만들어진다.

홍종만 상임고문은 “2010년 뉴욕 동창회 대부이신 이준행 대선배님이 골든클럽 회장을 맡으시면서 골든클럽이 단체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셔서 처음 시작했는데 15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골든클럽의 역사가 담긴 뉴스레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7월호에는 정형외과 의사를 은퇴하고 뉴욕의 와인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며 와인 라이선스를 따 직접 와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와인 전문가로서의 삶을 즐긴 이흥빈(의대 57) 원로 동문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흥빈 선배님 (서울대 의대 57학번) 인터뷰:  
정형외과 의사에서 와인 전문가로, 삶의 깊이를 더하다



지난 6월 17일, 골든클럽 회원들과의 정겨운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흥빈 선배님 (서울대 의대 57학번)\*\*을 모시고 귀한 대담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의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형외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오랜 세월 활약하시고, 은퇴 후에는 와인 전문가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신 선배님의 이야기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배님의 다채로운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고난과 성취의 정형외과 의사 생활 이흥빈 선배님은 1970년대 초, 젊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셨습니다. 당시 한국에서의 의사 경력은 미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기에, 선배님은 미시간주 로얄 오크에서 인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선배님은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것은 한국인에게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의료 분야였기에 선배님의 노력과 성취는 더욱 빛났습니다.

김스틴 뉴욕에 개업한 후, 선배님은 주로 백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삶은 수술과 응급 호출도 받았으며 바쁘고 힘들었지만, 선배님은 지역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의사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의료 외적인 부분에서도 환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는 선배님의 말씀에서는 환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66세에 정형외과 의사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평생을 바친 직업에 대한 후회함과 함께 아쉬움도 내비치셨습니다.

은퇴 후의 새로운 열정, 와인 전문가로의 변신 의사 생활을 은퇴하신 후, 이흥빈 선배님은 와인에 대한 오랜 애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뉴욕의 와인 대학에서 2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와인 라이선스를 취득하였고, 직접 와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와인 전문가로서의 삶을 즐기셨습니다. “평생 와인을 즐겼으니,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된 와인 공부에 선배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와인리더들을 직접 방문하며 와인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고, 와인에 단순한 술이 아닌 하나의 학문이자 문화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배님은 와인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와인 라이선스 취득 과정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유통 과정을 설명하시며 사업의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비록 와인 스토어는 현재 운영하지 않지만, 와인을 통해 얻은 지적 만족감과 새로운 경험들은 선배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어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와인을 쉽게 설명해주며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는 말씀에서는 와인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삶의 깊은 통찰과 후배들을 향한 조언 이흥빈 선배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5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생사의 고비를 넘기셨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으시며, 당시 서울대 동창회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위로가 없었던 것에 대한 깊은 서운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동창회를 자퇴하게 된 사연을 밝히시며, “이후 노년기가 다쳐도 이렇게까지 무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간적인 도리와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선배님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결국은 남자가 먼저 속이고 양보해야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선배님의 말씀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인생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와인에 대한 열정처럼 무엇이든 깊이 파고들면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넵셨습니다.

이흥빈 선배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불확실한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선사했습니다. 다음번에 선배님을 모시고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선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매달 화상 만남으로 시작해 실질 투자로 꽃피다

## 미주동창회 창업 네트워크 3년 도전과 성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 하리라.” 2022년 4월, 단 몇 명의 동문이 화상으로 만난 첫 모임이 바로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이하 기업넷)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3년여, 이제 기업넷은 4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활발한 동호회로 성장했다.

기업넷의 탄생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2022년 초, 김량국 동문(사대 92)이 창업의 길로 들어서며 동창회보에 기고한 글을 한홍택 동

매월 진행되는 정기 모임은 이제 기업넷의 핵심 활동이다. 초기 1시간이던 모임 시간은 이제 2시간을 훌쩍 넘긴다. 신입 회원 소개로 시작해 각자의 사업 근황을 나누고, 회원사 발표나 AI, 투자 등 관심 주제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진다. 10~15명이 참석하는 모임에서는 사업 고민에 대한 조언과 격려가 오가며 진정한 동문 기업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상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기업가넷을 통해 줌으로 만나 투자를 한 김성열(왼쪽) 동문과 투자를 받은 박상래 동문. 치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김 동문은 성공한 벤처 기업가로 2022년 9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박 동문을 초대해 성공 노하우도 전수했다.

동문 10~15명 참여, 사업 근황·고민 나누며 대화

이진형 교수 '엘비스' 소개 후 서너명 투자 결정

둘째 주 화요일 줌 미팅, 관심있으면 누구나 환영

문(공대 60)이 읽고 연락을 취한 것이 계기였다. 미주 한인 사회에 서울대 동문 기업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한 동문의 제안에 김 동문이 간사를 맡으며 기업넷이 공식 출범했다.

초창기는 쉽지 않았다. 회원 수가 적어 한홍택 동문이 일일이 연락해 한 명씩 회원을 모집해야 했다. 하지만 매달 꾸준히 온라인 모임을 이어가며 기업가와 투자자 동문들이 하나둘 합류했고, 지금까지 30회가 넘는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인 질문과 답변, 때로는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기업넷의 특징이다. 현재 기업넷에는 고국화(공대 56), 한홍택(공대 60), 김성열(치대 61), 김종구(수의대 71), 양경호(공대 83), 장운정(법대 84), 한영신(생과대 86), 박현아(공대 88), 강호석(공대 88), 송명국(인문대 90), 김량국(사대 92), 박민규(농대 98) 동문 등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노명호(공대 61), 이광호(공대 71), 박상래(공대 87), 장병희,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가 뇌 질환 진단 및 치료 기기 개발을 목표로 창업한 엘비스(LVIS)도 기업넷에서 소개된 후 동문 서너명의 투자를 받았다.

이진형, 문성인 동문 등 여러 기업가와 투자자 동문들이 관심 주제에 따라 참여하며, 특히 80년대 이후 학번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다. 초창기 모임에

서 박상래 동문(공대 87)이 자신의 회사를 발표했고, 이를 관심 있게 본 김성열 동문(치대 61)이 만남을 가진 후 투자를 결정했다. 또 최근 이진형 동문(공대 95)은 기업넷에 자신의 회사 엘비스(LVIS)를 소개한 뒤 서너명 동문의 투자를 받았다. 기업넷이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들이었다.

그렇다면 기업넷의 미래는 정말 '창대'할 수 있을까?

기업넷은 더 많은 기업가와 투자자 동문의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투자와 사업 제휴, 비즈니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는 기업넷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더 많은 동문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창대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다.

미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매달 둘째주 화요일 서부시간 6시에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동문은 rkim@oakbioinformatics.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 기업넷이 동문들과 함께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글=김량국(편집위원·사대 92)

## 동문 기업과 동문이 만나는 'SNUAA Market' 곧 출범

제품 사고 팔고 아이디어 나누는 플랫폼

B2C는 물론 B2B 등 다양한 상품 올릴 예정

기업넷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SNUAA Market'이다. 회원사들이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동문들에게 특별 할인가로 제공하는 온라인 장터로 B2C는 물론 B2B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올라올 예정이다.

SNUAA Market의 목적은 명확하다. 첫째, 회원사들에게는 제품 노출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사업 초기 단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둘째, 일반 동문들에게는 동문 기

업이 만든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동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문 연대의 특별한 장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문 회사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넷은 이 마켓이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활발한 비즈니스 생태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회원사와 동문들이 만나 제품을 사고 팔고,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며, 나

가 유망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까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SNUAA Market은 준비 단계에 있으며, 곧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자신의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 회원사나 좋은 제품을 찾는 동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동문이 만들고 동문이 사용하는, 서로를 돕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SNUAA Market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독특하고 의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SNUAA Market이 동문들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80년대 이후 학번 대표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 아래줄 왼쪽부터 고민석(88), 최용준(81), 이현림(81), 양수진(80), 송미선(88), 신경섭(91), 채희동(95), 김우정(84), 이응택(04), 송명국(90), 이웅(84), 정승우(95), 김종하(85).

## 남가주 동창회, 관악세대 통합 위한 새 출발 다짐

남가주 총동창회가 이른바 '관악세대' 통합에 나섰다. 지난 7월 11일 (금) 오후 7시, 라하브라의 웨스트릿지 클럽하우스에서는 80학번 이후 각 학번 대표 13명이 첫 모임을 갖고 새로운 동창회의 비전을 공유했다.

2026년 남가주 동창회를 이끌게 될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은 지난 2월 차기회장 선출 당시부터 80학번 이후 세대를 동창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동문들의 근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각 학번의 대표를 지

80학번 이후 각 학번 대표 13명 첫 모임 가져

11월 8일 카요티 컨트리 클럽 'Get to Know Gala'

명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날 모임은 그 결실을 맺는 자리였다.

이날 회식 자리에서 양수진 차기 회장은 파워포인트 발표를 통해 2026년 동창회 계획의 큰 그림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동의를 얻었다.

양 차기회장은 동창회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지역사회에 더욱 확장된 기여를 해야한다고 역설하며, "서울대학교의 장점을 나누는 콘텐츠와 틀을 통해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의 발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과 철저한 준비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모임에 새로 동참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학번 대표들은 최근 발행된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50년사를 돌려보며 선배들의 발자취에 놀라움을 표하고, 앞으로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열의를 다졌다.

이번 학번 대표 모임은 오는 11월 8일 오후 4시 풀러튼의 로스 카요티 컨트리 클럽에서 관악세대를 위한 'Get to Know Gala'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미디어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취직·커리어 ... 실질 도움 주는 동문 네트워크 만들자”



이희운 (농대 84)  
조지아대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 지속가능 발전기획담당 고문을 맡은 이희운(농대 84) 동문은 지난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린 평의원회의 워크숍에서 미주 서울대 동문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현직 미주 동창회장과 서부, 중서부, 동부, 남부 등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 회장 및 총무 등 10여명을 선별해 개별 줌인 터뷰를 했고 그를 토대로 동창회 발전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네 가지 방안에는 1. 미주동창회와 각 지부간의 소통 기반 강화 2. 이를 위한 정기적인 지부 회장 모임 추진 3. 젊은 세대 신규 영입 및 확대 4. 타

### 미주 서울대 동문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

지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성공사례 기반 활성화 전략 공유 등이 담겨 있었다.

미주동창회와 각 지부의 협력과 소통 강화는 매달 정기 줌 미팅 추진으로 첫발을 뗀 만큼 이 글에서는 젊은세대 영입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소개한다. 다음은 이 동문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1) 아카데미아 기반 전문 포럼 구축

이 포럼은 아카데미아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각종 교수직 채용 과정에 대한 심화 멘토링, 인터뷰 대비 훈련, 서류 준비 코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미국 교수사회의 문화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적응 전략도 포함해 초기 커리어 단계의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젊은 동문들이 전문성 있는 관계망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면 단지 후배를 돕는 차원을

넘어, 동문회 전체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접근이 될 것이다.

(2) 산업계 종사 젊은 동문 전문 네트워크  
젊은 동문들의 실질적인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 및 네트워크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직업 정보, 이직 전략, 취업 기회 등을 공유함으로써, 후배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커리어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계 기반의 동문 네트워크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동문회가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효성을 크게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3) 부모교육 정보 교환 플랫폼 제안

선배 동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교육 방법이나 진로 전략을 나누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동문들에게는 산업계에 종

사 중인 다른 동문들과의 연결을 통해 인턴십이나 직업 체험 기회를 추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부모 교육 기반 네트워크는 동문회가 가족과 세대를 잇는 공동체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 (4) 은퇴준비 포럼

동문회의 지속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보 공유의 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포럼은 메디케어 신청 절차, 파트타임 보장 내용, 사회보장 연금 청구 시기 등 실용적인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은퇴를 준비하는 동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문 법률, 세무,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무적인 지식을 나누는 워크숍 형식으로 운영하면 동문회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모범적 모델이 될 것이다.

트럼프 1기 교육부 장관 유력 후보였던 미셸 리, 그 뒷 이야기

## 이상열(의대 58) 동문 “딸은 트럼프의 첫 선택이었어요”

2016년 11월 19일, 한 장의 사진이 미주 한인 사회는 물론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뜨겁게 달궜다. 사진 속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한국계 교육개혁가 미셸 리, 그리고 남편 케빈 존슨. 트럼프가 미셸의 손목을 꼭 잡고 배웅하는 장면은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다. 곁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케빈의 모습도 인상 깊었다.

당시 미셸 리는 교육계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워싱턴 D.C.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미국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이 됐다. 남편 KJ(케빈 존슨)는 NBA 피닉스 선스의 전설적 포인트가드이자, 은퇴 후엔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 시장을 지낸 정치인이었다. 이 부부의 만남과 사진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컸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뉴저지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미셸에게 교육부 장관직을 제안했다. 만약 수락하고 상원 인준까지 통과했다면, 그녀는 한국계 최초의 연방 장관이라는 새 역사를 쓸 뻔했다.

그러나 장관직은 다른 백인 여성이 맡게 됐다. 당시 미셸이 자격과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변이었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많았지만, 관련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 사람은 뜻밖에도 미셸의 아버지, 이상열 동문(의대 58)이다. LA 한인타운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족회의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 딸과 사위는 진보 성향인데, 트럼프와는 정치 노선이 다르니까요. 공화당 내에서 미셸의 개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결국 딸이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메일을 직접 보냈습니다.”

이 동문은 당시를 회상하며 “트럼프가 우리 딸을 교육부 장관으로 일찌감치 낙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 성향의 정책이 공화당 틀 안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고, 상처받기보다는 물러서기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미셸 리의 교육 개혁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코넬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한 그는 2007년부터 3년간 워싱턴 D.C.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과감한 교사 평가제를 도입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교사 700명을 해고하고, 수십 개 학교를 폐교하는 한편, 성과가 탁월한 교사들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했다. 이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38개 주에서 채택됐다.



2016년 1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미셸 리 교육감을 배웅하고 있다. 왼쪽은 남편 케빈 존슨 전 새크라멘토 시장.



딸 부부가 운영하는 픽슨스 소울 키친에서 포즈를 취한 이상열(의대 58) 이임자 부부.

“딸과 사위는 진보성향 ... 가족회의서 반대”

‘NBA 전설’ 남편 케빈 존슨과 교육개혁 운동

‘픽슨스 키친’ 외식사업 도전하며 새로운 삶

퇴임 후에는 비영리단체 ‘스튜던츠퍼스트(StudentsFirst)’를 설립해 교육 개혁 운동을 지속했다. 남편 케빈 존슨도 NBA 시절부터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St. HOPE’를 설립하며 교육에 깊이 관여했다.

현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픽슨스 소울 키친(Fixins Soul Kitchen)’이라는 식당 체인을 공동 운영하며 외식사업에 나섰다. LA 레이크스 홈구장 옆에 위치한 1호점은

원래 ‘공룡센터’ 사킬 오널이 개업했던 곳.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케빈이 인수했고, 이후 부부가 전국 맛집을 돌며 메뉴를 개발해 디트로이트, 피닉스 등 여러 도시에 체인점을 오픈했다. ‘픽슨스’는 남부 영어로 ‘사이드 디시’를 뜻한다.

“소꼬리 찜이 기가 막혀요.” 인터뷰에 동석한 ‘동창회 마당발’ 최진석 동문(법대 64)은 유쾌하게 추천했다. 이상열 동문은 자녀 셋을 두었다.

장남은 변호사, 막내는 셰프가 되어 디트로이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딸과 사위가 집에 찾아와 수다를 떨다 갔지요.” 사위 이야기를 하며 이 동문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동문은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한인타운의 작은 교회에서 의료 봉사에 참여하고, 가까운 산에도 자주 오른다. 매주 화요일이면 고교 동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동창회는 더 재밌어요. 꼭 참석하세요.” 차기 남가주 회장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의 권유에 그는 환한 웃음으로 답했다. 마침 부인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 나 지금 동창회장님 만나서 신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의 얼굴에는 58 학번답지 않은 젊음과 생기가 가득했다.

서울대  
홈커밍데이  
10월 19일



10월 21일 ~ 25일  
4박 5일

제주도 관광

문의:  
(651) 308-0796

Email:  
contact@snuuaa.org

## 황효숙 회장과 박현아 사무총장 'IBRD 칼'로 이어진 애뜻한 사연

지난 6월 21일 미네소타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2부 순서에서, 신임 사무총장 박현아(공대 88) 동문이 사회를 맡았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춘 채 감정을 추스르더니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저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동창회를 통해 커뮤니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이어 송창원 박사님, 김권식 선배님...” 그러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황효숙 회장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박 사무총장은 뜻밖에도 ‘칼’이야기를 꺼냈다.

순간 평의원들의 시선이 그의 입에 모였다. 느닷없이 웬 칼 이야기인가.

박 사무총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황 회장이 평생 가보처럼 아끼던 칼을 자신에게 ‘하사했다’고 말했다. 그 칼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1970년대 초, 황효숙 회장은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 월드뱅크)에 과

장급으로 취업했다. 당시 지원자만 3천여명, 선발 인원은 단 세 명이었다. 그 중 유일한 여성 합격자가 바로 황 회장이었고, 그는 최상위 성적으로 발탁돼 과장 대우를 받으며 근무를 시작했다.

한국 오피스에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각국에서 파견된 7~10 명의 컨설턴트들이 함께 일하며, 한국의 재건을 위한 국제 콘소시엄을 이루고 있었다. 댐, 교량, 토목 등 인프라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전문가들이었다. 황 회장은 이들과 동료처럼 어울리며 점심도 자주 함께했다.

그 중 한 명인 ‘닥터 칸’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엔지니어였다. 황 회장은 그를 ‘지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고 회상했다. 귀국을 앞둔 닥터 칸은 어느 날 황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선물 하나를 건넸다. 단검이었다. 파키스탄 전통 문양이 새겨진 나무 칼



황효숙(왼쪽) 미주 동창회장이 자신에 꿈을 심어준 'IBRD 칼'을 박현아 사무총장에게 건네주고 있다. 작은 사진은 파키스탄 전통 문양이 조각된 칼집. 단검과 포크가 들어있다.

집 안에는 칼과 포크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어렵게 구한 귀한 물건이니 소중히 간직해 달라”고 했다. 이 단검은 황 회장에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IBRD에서의 경험과,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상기시켜 주는 상징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 또한 IBRD

에서의 근무 덕분이었다.

“박현아 동문을 알게 된 건 세계 큰 행운이었어요. 제가 이 칼을 보며 꿈을 키웠듯, 박 동문도 동창회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칼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지요.”

글=박용필 편집고문(문리대 66)

## 뜨거운 여름, 시카고에서 피어난 본교 간호대와의 유대

뜨거운 7월, 시카고는 한국에서 온 네 명의 젊은 간호학도들로 더욱 활기찼다. 본교 간호대학 3학년 재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3주간의 짧지만 값진 연수를 위해 UIC(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와 그 부속 병원을 찾은 것이다. 이는 UIC가 외국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단기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모교가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십수 년간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해외 학습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선진적인 대학 수업과 실제 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대를 이어가는 환대와 격려

시카고 간호대학 동창회는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후배 재학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마련해 왔다. 이 만남은 단순히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넘어, 선후배 간의 돈독한 유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후배들로부터는 모교의 최신 소식과 오래된 교수님들의 근황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미국의 병원 시스템과 우리의 경험담을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공감한다.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서울대 간호대학이라는 끈 하나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금세 마음이 통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나일스에 위치한 BBQ 가든



시카고 간호대 동문들이 연수를 위해 UIC(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와 그 부속 병원을 찾은 모교 후배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점심 회식을 열고, 정겨운 담소와 함께 작은 선물도 건넸다. 특히 올해는 간호대 행사로만 진행해 오던 환영 모임에 시카고 지부 동창회장님을 특별히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성일 동창회장님(공대 86)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회식에 참석해 재학생 후배들을 따뜻한 환영사로 격려했다. 즉석에서 학생 대표에게 금일봉을 건네는 모습에서는 후배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동창회장님께서도 근 반세기 가

까이 매달 부부가 함께 모임을 이어온 간호대 동창회의 단합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축복

큰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간호대학 동문들과 처음 만난 후배 재학생들은 불과 몇 시간의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듯 금세 친밀해진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라는 굳건한 연결고

리 덕분이다. 후배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염원하는 선배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비록 3주간의 짧은 연수 기간이지만, 이 경험이 후배 재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견문을 넓혀 더 큰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들의 장도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글· 사진= 윤봉수(간호대 69)

# 학벌·이력·의욕과 열정 모두 ‘역대 최강’ 임원들

## 18대 미주동창회 회장단

학벌이나 이력에서 역대 최강이다.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명망있는 교수님과 기업인들이 상임 고문과 고문, 집행부 국장으로 포진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역대 최강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지속가능한 동창회의 성공적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총명한 18대 회장단을 소개한다.



지난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원에서 황효숙 회장이 18대 회장단을 소개하고 있다.



**박현아**  
사무총장  
(공대 88)

18대 사무총장의 소임을 맡게 된 박현아입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여러 동문님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공업화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정부출연기관에서 에너지 환경 정책 업무를 하던 중 좋은 기술들이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려면 자본과 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서울대 기술정책 박사과정에 진학해 관련연구를 하던 중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포스트 닥으로 일하게 된 남편과 함께 2001년 미국에 와서 같은 대학에서 재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미네소타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도 2007년부터 미네소타 주립대에 교수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2015년부터 뉴욕시립대학교내 브루클린 대학에서 제가 전공한 헤지펀드 이론을 실무와 연결해서 그 대학의 성공적인 동문 기업들과 협력하며 연구하고 강의할 기회가 생겨 뉴욕으로 직장을 옮겨 재무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과 동기이지만 미국 생활 초기에는 동문회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어린 아이를 키우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새로운 연구환경과 직장문화에 적응하려는 바쁜 일상속에 다른 일들에 참여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미네소타 지부의 큰 어른이신 송창원 교수님과 김권식 박사님, 고 왕규현 교수님 내외분을 만나게 되어 그분들의 소개로 지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달 집으로 배달

되는 동창회보를 읽으며 미주동창회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네소타 지부와 한인 사회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세대 교류와 소통의 문화가 잘 형성된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90대 선배님들부터 20대 젊은이들과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들이 한두달 마다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며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연주를 듣고 고향의 봄과 오빠 생각 같은 가곡을 같이 부르는 모임을 10여년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와 황효숙 회장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황 선배님께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신 후 저희 부부에게 함께 일해줄 것을 요청하셨을 때 힘 닿는 대로 도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작년 초부터 황 회장님이 18대 임기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도우면서 여러 지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많은 동문님들과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선배님들이 쌓으신 경험과 지혜가 젊은 후배들의 열정, 신기술과 만나 함께 생각하며 운기를 나누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대화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동문회 일을 하는 가장 큰 목표이고 소망입니다. 18대 황효숙 회장님과 집행부가 이런 일들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여러 동문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근**  
총무국장  
(농생대 대학원 14)

총무국장을 맡게 된 임동근입니다. 황효숙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

배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농생대)에 입학해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술발전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신진 연구자입니다. 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기술발전의 복합적인 특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교에 대한 애정을 마음속에 간직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문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으로서 동문간 교류와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하고 활기찬 동창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창수**  
재무국장  
(경영대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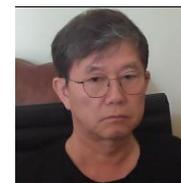
재무국장을 맡은 경영대 경영학과 86학번 손창수입니다. 1990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다 1993년 미국으로 유학 와서 MBA와 Ph.D.를 하고 2000년부터 미네소타에 있는 St. Cloud State University에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경영정보시스템)을 가르치는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가톨릭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기도 했고 2021년 가을에는 일본 도쿄 소재 Rikkyo University에서 교환교수로도 있었습니다.

2011년 신학철 선배님을 미네소타 동문회 회장님으로 모시고 총무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황효숙 선배님께서 18대 미주동창회장으로

봉사하심에 따라 재무국장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미주동창회가 황효숙 회장님과 함께 더욱 알차고 세계 여러 곳의 동문회의 모범이 되고 더욱 활기찬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재무국장으로서의 목표입니다.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감사  
(공대 73)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73학번 김영석입니다. 18대 미주동창회 회장단에 감사로 함께하게 되어 큰 책임감과 더불어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저는 미국 커민스(Cummins Inc.)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뒤 은퇴하여 현재는 미네소타에 거주하며 여행, 피클볼, 골프, 사진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네소타 지부장을 비롯해 동창회 활동에 참여해오며, 동문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껴왔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약 75만불 예산을 운영하는 교회의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랜 봉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와의 인연은 제 인생의 든든한 뿌리였고, 동문들과의 만남은 그 뿌리에서 자라난 소중한 가지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문들과 함께 성장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미주동창회 역사에 한 획 긋는 발전 이루겠다”

18대 미주동창회는 고문단에게도 특정 역할을 맡겼다.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고문과 지부지원 담당 고문직이 새로 만들어졌고 오인환 12대 미주동창회장은 전략개발 담당 고문, 신응남 15대 미주동창회장은 법률 담당 고문으로 참여했다. 남가주의 한홍택 박사는 IT·장학·펀드 매니지먼트 고문, 시카고의 이준수 동문은 조직관리 담당 고문, 워싱턴 DC의 박평일 동문은 친선 담당 고문, 남가주의 김태환 동문은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고문을 맡았다.



**송창원**  
상임고문  
(문리대 53)

황효숙 18대 미주동창회장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직을 맡게 된 송창원입니다. 저는 1953년 문리과대학 화학과(현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 입학하였고, 이후 미네소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약 50년간 방사선생물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미네소타 지부는 약 30여 년 전에 설립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동창회와 인연을 맺어 제 2대 지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황효숙 회장님께서 미네소타지부 회장으로 재임하시던 시절 보였었던 열정과 리더십을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황 회장님이 미주동창회를 훌륭히 이끌어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유능하신 박현아 동문과 임동근 동문께서 각

각 사무총장과 총무국장의 중책을 맡아 회장님의 여러 창의적인 계획을 실현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의 서울대학교 재학 기간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 불과 4년이었지만, 90세가 넘는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 시절은 제 삶의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 위에 ‘송창원’이라는 나무가 자라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까지도 서울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나이가 들수록 모교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황효숙 회장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고문직을 수락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섬기는 리더십’ 정신으로 동문 여러분께 봉사하시겠다는 뜻에 공감하며,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철**  
상임고문  
(공대 75)

저는 75학년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생 신학철입니다. 미네소타 소재 3M Company에서 35년(한국에서 10년, 필리핀에서 3년,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22년) 동안 일하고 2019년부터 한국 LG화학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3M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LG화학에서 미래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네소타에 22년 거주한 거의 모든 기간을 서울대 미네소타 동창회와 함께해왔고, 특히 제 18대 미주동창회장으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황효숙 회장님이

미네소타 한인회장을 하시며 미네소타 한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서울대학교는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인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서울대와 여러가지 인연으로 특강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와 LG화학의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대학교 법인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서울대학교가 더욱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공헌하고자 합니다.

이제 막 출범한 18대 회장단이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큰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교 서울대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윤**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고문 (농대 84)

저는 농생대 84학번으로 현재 조지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좌교수(Thomas P. Holland Distinguished Professor)로 재직 중이며, 비영리조직연구소(Institute on Nonprofit Organizations)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알라배마 대학교 재직 당시에는 인공지능연구소(Alabama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공동소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와 기술을 융합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동문회 활동과의 인연은 미네소타 대학교 재직 시절,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 지부에서 여성간사와 총무국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배 동문들을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소모임을 조직하며,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알라배마 대학교로 이직한 후에는 동문회 활동에서 잠시 소강상태였지만, 올해 8월 조지아대학교로의 이직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조지아 동문회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발전기획담당 고문으로서, 동문회가 세대를 잇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성 공동체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동문회 활동은 서울대에서 받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서울대 동문으로서 누린 다양한 혜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실천으로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깊은 해안과 경험, 동료 동문들의 따뜻한 연대, 후배 동문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인**  
지부 지원 담당 고문  
(공대 88)

미네소타 지부 회장을 맡고있는 문성인(공대 88)입니다. 황효숙 회장님께서 지부 지원담당 고문을 맡아달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34차 평의원회의를 참석하고 지부장 회의를 주관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보를 보면 미주 지역동창회에 캐나다 두 곳을 포함해서 모두

29개의 지부가 등재되어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지부가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50개의 주를 가진 미국에서 29개의 지부니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으나 그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 동문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계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지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중인데 파악된 동문이 100명 안팎인 지부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보에 회비 납부자 명단을 보면 지부의 전체 규모를 대략 파악할 수 있는데 두 결과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중소 규모 지부의 힘든 점은 아마 안정적인 신규 동문의 영입과 활동을 위한 자원 확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소 지부들끼리 연합을 하거나 총동창회와 연계한다면 모든 지부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온라인 미팅과 세미나는 지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총동창회가 지부간의 교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 18대 지부 지원 담당 고문으로서의 생각이며 동문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언제나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수**  
조직관리 담당 고문  
(공대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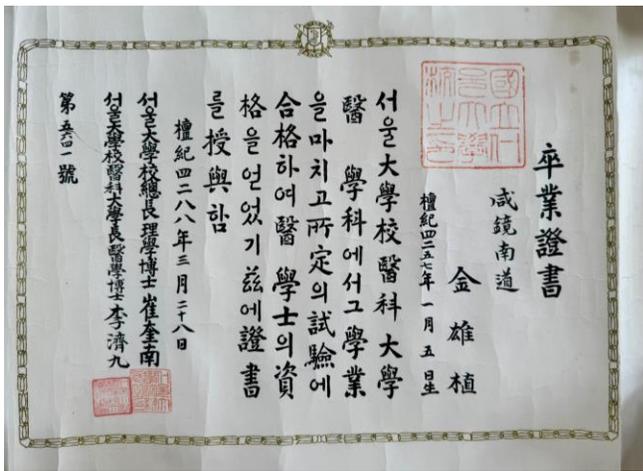
존경하는 미주 동창회 동문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공대 76학번으로 산업공학을 전공한 이준수입니다. 2018년 은퇴 후 미국 시카고 근교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산업 분야에 몸담았고, 이곳 미국에서는 그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스마트폰 강의도 하고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우리말과 문화를 전파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와의 인연은 시카고 지부의 IRS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동문간 유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주동창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황효숙 회장님을 도와 미주동창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미주동창회가 더욱 활기차고 의미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억의 서울대 사진전

며느리가 보내온 시아버지 의대 졸업장



조지아주 최화진(음대 85) 지부 동창회장이 집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시아버님 김웅식 동문(의대 55년 졸업)의 졸업장이라며 사진을 찍어 미주동창회에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동문들이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서울대’ 사진전을 동창회보 지면에 개최하면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옛시절을 떠올리며 미소지을 수 있는 서울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집합니다. 동문 이름과 학번, 간략한 설명을 담은 사진을 news@snuuaa.org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5월, 6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친정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하던 중 남편을 오하이오에서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스마트폰도 화상통화도 없던 시절, 내 이야기만으로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 딸의 6월 결혼준비를 하신 친정 부모님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게 된 딸에 대한 막막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시아버님에 대한 나의 심상으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온화하시고, 생각이 바닷물처럼 깊으셔서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요.” 늘 신앙심 깊고 존경받으시던 시아버님께서는 작년 여름, 95세로 평안히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집안을 정리하다 발견한 아버님의 의대 졸업장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인자하셨던 그 모습이 더욱 그리워진다.

의학과 동창회에 헌신한 강수상 선배님을 기리며

강수상(의대 47) 동문이 지난 7월 10일 오랜 지병으로 별세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고 오는 9월 20일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추도식과 함께 Lecture Series를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은 화환이나 부조는 사양하고 대신 시카고 한인문화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영일(의대 62) 동문이 보내온 강수상 선배에 대한 조사다.



(고)강수상 회장

엄격하면서도 동창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후배들을 아껴주셨던 선배님은, 동창회가 흠어지지 않도록 늘 규율을 세우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배님은 시카고 동창회의 대부로 기억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동문들이 고령화되고 젊은 후배들의 유입이 줄자, 동창회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동창회 모임이 뜸해지면 직접 나서서 부흥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1950년대 모교 교직 시절,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핵의학을 연구하신 뒤 귀국하여 모교에 방사선 동위원소실을 창립하셨습니다. 이어 1964년 IAEA 장학생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생화학과 유전학을 연구하시며 세균을 통한 생명현상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1973년에는 귀국 대신 시카고 러시 대학 교수로 남으셔서 Biochemical Genetics 분야의 Director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구 업적과 후배 양성에 헌신하셨습니다.

1983년 임상유전학 전문의 제도 창립에 참여하시고 American Board of Medical Genetics 창립멤버로 활약하셨으며, 호모시스테인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수많은 학술 논문에 인용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초빙 강사로 활약하

셨습니다. 후배인 저에게도 직접 전화를 주시어 신경내과 질환과의 임상적 연관성을 토론하시곤 하셨던 그 학구적 열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66년 서울의대 시카고 동창회를 창립한 후 1980년부터 하기캠프를 주관하고, 1983년부터 연례 학술대회를 열어 동창회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계탑에 글을 투고했을 때는 직접 전화를 주시어 “계속 글을 써 달라, 그것이 동창회를 위한 일”이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1990년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장을 역임하시며 China Medical Board Fund로부터 15만 불의 지원을 받아 모교에 기증하셨고, 1997년부터는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수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드님을 잃은 슬픔을 승화하여 장학재단을 세워 후배 양성에 힘쓰셨고, 최근까지도 사모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시카고 한인문화원을 통해 한인 사회에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1993~1995년에는 제 2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하시며 미주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창과 칭송을 받으며 지성적이고 활발하시던 선배님이, 최근 몇 년간 차츰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뵈 수 없지만, 저승에서도 동창회와 후배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히 그려집니다.

김병연 전 남가주 동창회장 장례식

400여명 동문과 교인들 함께 추모

지난 7월 11일, 위티어의 로즈힐스 스카이로드 채플에서 열린 김병연(공대 68)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의 장례식에는 400여 명의 동문과 교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과 업적을 기리며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장례식장에는 황효숙, 이기준, 김은중, 노명호, 윤상래 등 미 전역의 전·현직 동창회장들과 이만택 서울대 미주재사장 등이 보낸 대형 조화 40여 개가 정갈하게 놓여, 고인의 인품과 넓은 인맥을 짐작케 했다. 한국의 동문들을 대표해 김종섭 총동창회장도 조화를 보내 추모의 뜻을 전했다.

김 전 회장의 천국환송예배는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황, 법대 69)와 LA 열린문교회(담임목사 박헌성)의 공동 주관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1980년 유학차 미국에 온 김 전 회장은 UCLA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마이크로웨이 컴퓨터 인스티튜트’를 창업해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2010년에는 LA 한인타운에 문화공간 ‘작가의 집’을 열어 서울대 동



(고)김병연 회장

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릴만큼 박식했던 고인은, 동문들의 경조사는 물론 삶의 흐름까지도 꿰뚫고 있을 정도로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으며, 동창회 내에서 큰 신망을 얻었다.

채규황 동창회장은 이날 장례식 조사에서 “고인은 별세 당일 아침까지도 동문들과 어울리는 등 누구보다 동창회를 사랑하셨다. 몸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동문들과의 자리에 결코 빠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집 뒤뜰에 별채를 짓고 완공되면 동문들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열고 싶어했다”며 눈시울을 붉혀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채 회장은 또 “형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대식(공대 52)** = 지난 1월 돌아가셨는데 유가족이 한국 동창들의 주소를 몰라 연락을 하지 못해 뒤늦게 별세 소식이 알려졌다.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들은 소식을 접하고 엔지니어로서 여러 발명을 했던 그를 기리며 각종 설비와 공구를 갖춘 김대식 동문의 KimATLab을 처분하고 동문들이 십시일반 위로금을 보태 ‘김대식 장학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상호(사대 52)** = 7월 14일 별세. 향년 92세.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주상공인총연합회 회장 역임. 한민족포럼 발행.



지난 7월 12일 열린 총회 및 피크닉에 모인 미시간주 동문들. 최고령 박용화(의대 52) 선배님과 이선희(문리대 62) 선배님. 박용화선배님은 1952년 휴전 직후 입학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룬 의사생활에 대해 들려줬다.

미시간 지부

이야기꽃, 재미있는 게임 ... “언제나 즐거워”

지난 7월 12일 Island Lake 파크에서 30여분의 동문 및 가족들이 모여 총회 및 피크닉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무더웠던 날씨를 총회가 끝날 무렵인 낮 12시 30분쯤

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서 무더위가 짝 가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동문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식사 후에는 돌아

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게임에 앞서 국민체조로 가볍게 몸을 풀 동문들은 임성철(농대 86), 한영신(가정대 86) 동문 커플의 지도 아래 ‘천둥번개’팀과 ‘비바람’팀으로 나뉘어 공던

지기, 제기차기 등 게임을 즐겼다. 이번 총회 및 피크닉에서는 박준부(공대 76) 동문이 동창회 일반이사로 참여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취재=이광진(공대 81) 지부 회장**

뉴욕 지부

김병순 신임 회장 취임

서울대 뉴욕지역 총동창회는 지난 6월 28일 뉴저지주에 있는 식당 가연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47대 동창회장으로 김병순(사회대 82) 동문을 선출했다. 김병순 신임회장은 이날 “선배들이 이어온 전통을 잘 지키면서 80년대 이후 학번 동문들도 동창회 모임에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카고 지부

7월 월례회는 70여명 참석  
기후변화 관련 강연 큰 관심

시카고 시니어 동문 모임인 골든클럽은 시카고 지역뿐 아니라 이웃 위스콘신이나 인디애나에 사는 동문들도 함께 지속적인 월례 모임을 통해 친분과 유대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52명의 동문이 모여 월례회 대신 시카고 다운타운 1일 관광을 즐겼다. 아침 8시에 다운타운으로 출발해서 천문대 캠퍼스 앞에서 아름다운 시카고 다운타운을 배경으로, 또한 버킹검 분수대 앞에서 미시간 호수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네이비 피어(Navy Pier)에

시카고 지부 골든클럽 동문 52명, 시카고 다운타운 1일 관광



시카고 다운타운 관광에 나선 골든클럽 동문들.

서 몰입형 4D 어트랙션인 플라이오버 시카고(Flyover Chicago)를 타고 실제 시카고 다운타운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는듯 짜릿한 체험을 했다. 동문들은 이어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후 배를 타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감상했다. 7월 월례회에는 70여명이 참석해 BBQ Garden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다. 이날 이건홍(공대 75) 동문이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앞으로 인류문명에 끼칠 영향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동문들이 질문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두 동문이 새로 골든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글=안창혁(사대 65) 골든클럽 회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여름이면 도시 전체가 음악이 숨쉬는 공연장으로 변한다.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로마시대 원형극장 앞에 선 김영석 동문 부부(가운데 사진). 베로나 극장은 1만 5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 잘츠부르크·베로나·바이로이트가 준 잊지 못할 감동

## 김영석(음대 74) 동문의 세계 여름 음악축제 탐방기

여름의 시작은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유럽은 이 계절 동안 권위 있는 음악축제들의 중심지로 변모하며, 수많은 음악인과 청중을 맞이한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음악축제에 참여해온 나는 예술적 완성도와 정교한 기획으로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 세 곳의 축제를 잊을 수 없다. 이 축제들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삶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 잘츠부르크 음악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열리는 잘츠부르크 음악 페스티벌은 매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음악적 완성도를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음악 경험과 연주를 선사하는 명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잘츠부르크의 역사적인 배경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Vienna Philharmonic Orchestra)가 축제 기간 내내 상주하며 공연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오페라는 야외가 아닌

### 세계 음악 순례의 정점 ... “매년 가고 싶다” 105년 역사, 거의 매일 빈 필 연주 들을 기회

지금까지 다섯 번, 최근에는 2020년과 2023년 방문했는데 해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때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작품을 연주해 음악을 하는 나에게는 서양음악의 스타일과 새로운 해석을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레슨 기회이기도 하다. 시간이 허락하면 정말 매년 가고 싶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 막스 라인하르트, 후고 폰 호프만스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술을 통해 인류를 통합하려는 염원에서 시작되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음악적 순례의 정점이 됐고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숨 쉬는 듯하며, 공연장과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준다. 축제의 상징과도 같은 개막 연극 《예더만(Jedermann)》은 잘츠부르크 대성당 앞 광장에서 매년 공연된다.

페스트슈필하우스(Festspielhaus)와 같은 전문 공연장에서 연주되어 최적의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나는 이곳에서 매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앙상블의 연주는 내 영혼을 흔들었으며, 페스트슈필하우스에서 경험한 오페라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다. 잘츠부르크는 클래식 음악의 살아 있는 역사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음악이 가진 치유와 위로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매년 여름 5주간 열리는 이 축제는 오페라,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이 총출동하여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202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리며 약 170회 공연에 22만 2500장의 티켓이 준비된다. 올해 오페라는 ‘권력’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공연 된다.



###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 1만 5천여명 수용 고대 로마 원형극장서 공연 밤하늘 울려 퍼지는 웅장한 ‘개선행진곡’ 전을

이탈리아 베로나의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 오페라 페스티벌은 다른 어떤 축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기원 후 1세기에 지어진 거대한 로마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공연은 그 자체로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준다. 1913년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아이다》 공연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장장 세 달간 펼쳐지며, 야외 오페라 축제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현장에서 공연 직전에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매일 그 정도의 관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운영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레나 디 베로나는 이를 완벽하게 해내며 오페라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아이다》의 웅장한 개선행진곡이 고대 돌벽에 부딪혀

울려 퍼질 때, 마치 로마 시대의 관객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밤하늘 아래 촛불을 든 수많은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장관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예술을 경험하는 잊지 못할 의식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사랑과 비극의 기운이 깃든 이 도시에서 펼쳐지는 오페라는 음악과 역사가 하나 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준다. 아레나 디 베로나는 오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오페라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아야 할 마법 같은 장소다. 2025년 페스티벌은 6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며 아레나의 대형 무대에 적합한 이탈리아 오페라를 중심으로 총 47회 공연을 한다. 올해 개막작은 새롭게 제작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였다.



바그너 음악극 전용극장인 바이로이트 페스트슈필하우스 앞에 선 김영석 동문 부부. 오른쪽 사진은 공연이 열리는 페스트슈필하우스의 내부 모습. 일명 동굴 극장으로 불리는 페스티벌 극장은 1 층과 2 층 모두 무대와 가깝게 배치돼 있다.

## 26년 걸쳐 작곡한 ‘니벨룽의 반지’ 영혼을 울렸다

### ((( 바그너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

오랜 꿈이었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티켓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티켓 경쟁이 매우 치열해 3년을 도전한 끝에 3년 전 처음 바이로이트에 입성할 수 있었다. 매년 7월 하순 시작하는 시즌 티켓 신청 마감일이 그 전 해 10월 중순이다. 그것도 주최측인 바그너 협회에 원하는 공연 날짜와 좌석을 적은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 웨이팅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돼야 한다. 처음엔 싼 가격의 티켓을 신청해 번번히 실패하고 3년 전 비싼 티켓을 신청 해서야 당첨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니벨룽의 반지》는 그 자체로 거대한 서사시이다. 단순히 작곡 기간이 길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26년에 걸친 대장정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총 4개의 악극(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으로 이루어진 15시간 분량의 방대한 4부작으로, 바그너는 1848년 첫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해 1874년에야 모든 작곡을 완료했다. 긴 시간을 들여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음악으로 엮어낸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말 그대로 ‘불가능에 도



페스트슈필하우스 인근에 세워진 바그너의 흉상

주제는 ‘황금’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그로 인한 과멸이다. 신들이 황금으로 만든 반지를 소유하려다 결국 몰락하는 과정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근대 사회에 대한 바그너의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그너는 과멸 속에서도 희망을 제시한다. 바로 ‘사랑’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이다. 마지막 악극 ‘신들의 황혼’에서 브륀힐데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타락한 세계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불꽃을 지핀다. 이는 26년의 고통스러운 창작 과정 속에서 바그너 자신이 깨달

은 삶의 진실이기도 했다.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인다”는 말처럼, 나는 음악을 전공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약 150여 시간의 준비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노력은 축제 경험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바그너가 각 음표와 대사 속에 심어 놓은 상징과 의미를 찾아내고, 그의 철학적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은 지적 유희이자 영혼의 깨달음이었다.

페스트슈필하우스의 독특한 음향 설계는 바그너의 의도대로 오케스트라와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을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이끌었다. 어두운 객석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연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다. 막간 휴식 시간에는 ‘녹색 언덕’에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독일식 소시지(wurst)를 즐기며 바그너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바이로이트는 나에게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 1877년 바그너가 직접 건립한 전용 극장서 공연

### 티켓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3년 도전 끝 성공

2025년 시즌부터 일정 물량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니 내년 시즌 티켓에 도전해볼 생각이 다. 12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 선착순 판매를 시작하는데 30분 이내에 결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니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가 재빠른 손놀림으로 해내고 말리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바그너의 심오한 음악극(Music Drama) 세계와 그가 직접 설계한 오페라 극장에서 그의 놀라운 업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내 삶이나 음악 교육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극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공연하기 위해 전용극장인 페스트슈필하우스(Festspielhaus·축제극장)를 직접 건립하고 1876년 자신의 역작 《니벨룽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를 이곳에서 초연했다.

바그너의 최고 걸작이자 서양 음악사에 전례없는 혁명을 가져온

전 하는 꿈의 작품’이었다.

그는 단순히 대본을 쓰고 음악을 붙인 것이 아니라, 고대 게르만 신화와 북유럽 전설을 깊이 연구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사를 창조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음악적 언어와 극장 시스템까지 고안했다.

이 거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이었다. 악극의 규모 자체가 거대하여 엄청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전용 극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그너는 이를 위해 왕실 후원자들(특히 루드비히 2세), 부유한 팬들, 심지어 자신 공연과 강연을 통해 돈을 모으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때로는 사기와 다름없는 수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후원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바그너는 《니벨룽의 반지》를 통해 단순한 신화 이야기를 넘어, 당시 사회와 인류 본질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작품의 핵심

### 차이코프스키, 바이로이트 초연을 관람하다

1876년, 《니벨룽의 반지》 초연 당시 러시아의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는 기자 자격으로 바이로이트를 방문했다.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자신의 소감을 남겼는데, 그의 평가는 다소 복잡적이었다.

차이코프스키는 바그너의 음악적 재능과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실현해낸 집념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했다. 특히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음향과 바그너의 혁신적인 화성 기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바그너의 ‘무한 선율’ 개념과 끝없이 이어지는 음악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극의 서사가 지나치게 길고 철학적이어서 일반 관객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코프스키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중요성과 바그너가 이룩한 업적의 거대함을 인정했다. 그는 바그너가 서양 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작품이 미래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견했다.

# “시키면 뭐든 척척 ‘에이전트 AI’ … 업무 혁신 가져올 것”

SNU 포럼 7월 강좌

DeepSeek 이후의 AI 혁명: 에이전트 AI 시대

2025년 7월 12일 줌으로 진행된 SNU 포럼 세미나 ‘DeepSeek 이후의 AI 혁명: Reasoning 능력의 부상과 에이전트 AI의 시대’에는 AI 업계의 흐름에 관심을 가진 많은 동문이 참여했다. 이날의 초청 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현재 수석 연구 관리자(Principal Research Manager)로 일하고 있는 김영진(공대 98) 박사였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세계 AI 산업의 변화와 전망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김 박사는 2022년에는 자연어 처리, 2023년에는 챗 GPT의 실무 적용을 소개한 바 있으며, 매년 직함이 바뀔 정도로 빠른 승진과 함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자다.



김영진 (공대 98)

MS 프린서플 리서치 매니저



딥시크가 촉발한 ‘에이전트 AI’ 시대를 보여주는 이미지. 에이전트 AI는 각종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작, 법률 자문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조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박사는 강연 서두에서 최근 AI 분야가 겪고 있는 ‘성능 향상의 한계’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GPT-4 이후 거대 언어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가 둔화되었고, 데이터와 연산 자원의 무한 증대만으로는 더 이상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델을 키우면 무조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며, 단순한 모델 확장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리즈닝(Reasoning), 즉 생각하는 AI이다. 기존의 AI는 단순히 입력에 대해 특 특 답을 던지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사고 과정을 거친 뒤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김 박사는 “컴퓨터를 무한히 증가시켜 모델 크기를 키우고 많은 데이터를 넣어 학습시키던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돌과구로 등장한 것이 리즈닝이며, AI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체계 속에서 체인 오브 슷트(Chain of Thought)라는 학습법이 등장했고 O1, O2, O3, O4라는 모델들이 잇달아 등장하며 GPT-4가 풀지 못하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고 과정을 거친 모델들이 얼마나 정확도를 높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 박사는 에이전트 AI의 시작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에이전트 AI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챗봇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단순한 질의응답에서 벗어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와 절차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델이 필요했는데 초기에는 도구 활용 능

력이 제한적이었지만, 다양한 API와 툴이 연결되면서 에이전트 AI는 점점 더 인간과 유사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며 “예를 들어 일정 관리,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심지어 창의적 기획까지도 한 번의 요청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흐름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곧 기업과 개인 모두가 일상적으로 에이전트 AI를 조수처럼 활용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AI업계를 뒤흔든 사건을 소개했다. 바로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DeepSeek) R1 모델의 등장이다. 딥시크는 리인포스먼트 러닝만으로도 기존 오픈 AI의 최고 성능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1월에 등장한 이 모델은 2월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박사는 “딥시크는 오픈소스화된 최적화 기법과 소프트웨어를 하루에 하나씩 공개하며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아하 모먼트를 선사했다”며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5% 하락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불과 3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좁혀진 상황을 짚으며, 딥시크가 AI 발전사에서 상징적인 전환점임을 강조했다.

강연은 이론을 넘어서 실생활 응용 사례로 이어졌다. 김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적용된 코파일

럿(Copilot) 기능을 시연하며 회의 중 실시간 요약, 액션 아이템 정리, 늦게 들어온 참석자를 위한 대화 요약 기능 등을 소개했다.

“코파일럿 덕분에 한 명이 여러 명의 인턴을 거느린 것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또한 최근 주목받는 SWE 에이전트(Software Engineer Agent)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수행하던 코드 분석, 수정, 폴 리퀘스트 작성 등의 일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해결률이 0%에 가까웠던 문제를 이제는 75%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진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김 박사는 에이전트 AI(Agent AI) 시대에 대해 더 깊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HPT 하나만 쓰지만, 앞으로는 여러 모델 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HPT나 구글의 제미니와 같은 모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메일, 계산기, 웹서치 같은 툴도 더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앱이나 툴이 등장해도 표준 규격만 맞추면 서로 연결되고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어모델이 단순히 답을 주는 수준을 넘어 에이전트 AI 기능을 수행하며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상을 그린 것이다.

딥 리서치(Deep Research) 기능도 소개됐다. 특정 주제에 대해 웹을 탐색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을 수행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에이전트 AI가 수행한다. LM(Large Model)들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찾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며 순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실제 시연에서는 사용자가 단순히 주제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논문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표로 정리한 뒤 시각화까지 진행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이 선보여졌다. 이를 본 동문들은 “이제는 전문 리서치의 영역도 AI가 함께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을 표했다.

강연 후반부에는 김 박사가 향후 AI가 가져올 산업 전반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을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에이전트 AI를 거느리고 그들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작, 심지어 법률 자문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전트 AI가 조수로 투입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박사는 “업무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으며, 개인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국어 회의에서의 통역 가능 여부, 퀀텀컴퓨팅과 AI의 연계 가능성, 향후 일자리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 박사는 “현재의 많은 직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하며, 에이전트 AI 모델이 들어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각자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되고, 지치지 않는 어시스턴트가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툴들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AI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딥시크와 에이전트 AI가 불러올 혁신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앞으로의 업무와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하루 만에 엔비디아 주가 15% 뒤흔든 딥시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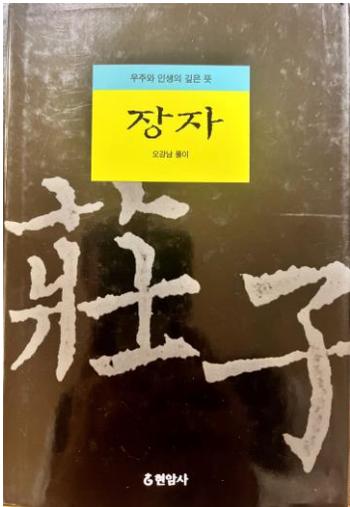
### ‘에이전트 AI’의 실무 투입 경쟁 가속화시켜

### 각자 분야에서 AI어떻게 활용할지 준비해야

# 가든 BBQ 속 지식의 향연 ... '장자'와 '하루키'를 읽다

## 서울대 뉴욕 북클럽 2025 년도 2 차 정기 토론회

서울대 뉴욕 북클럽(신응남 농대 70, 제 15대 미주동창회장)은 지난 7월 17일 뉴욕 인근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소재 회원 자택에서 가든 BBQ 를 곁들인 정기 발표회를 열었다. 한여름의 푸른 녹음 속에서 열린 이번 모임은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원들은 뉴욕에서 약 한 시간 거리의 모임 장소를 피크닉 가듯 찾아와 행사 시작 20분 전 여유롭게 도착했다. 초대한 김명혜 회원의 자택은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해 운치가 가득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올해 선정된 분야인 동양 철학서 『장자』와, 한·중·일 작가 중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였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동문들이 지난 7월 17일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소재 김명혜 동문 자택에 모여 열린 독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 ‘쓸모 없음’의 ‘쓸모’를 나누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해암(의대 52) 동문은 내편 제 1편 소요유(逍遙遊)를 통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된다”는 장자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장자』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글자는 바로 ‘화(化)라며, 이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곧 변화와 초월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동문은 “봉새는 엄청난 변화의 잠재력을 실현한 사람을 상징하며, 그 거침없는 비상은 변화와 변혁을 이룬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초월을 보여준다”고 설명해 참석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상징하며,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봉원(문리대 61, 변호사) 동문은 제 2편 ‘제물론(齊物論)’을 요약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장자는 모든 사물이 차별 없이 혼연일체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열이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며, “사람과 동물, 정확과 착오에도 차별이 없으며, 시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다가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중에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야기를 들려주며, “깨닫지 못한 인

간들이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보지 못하는 한계를 꼬집은 것”이라고 해석을 곁들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일상에서의 갈등과 편견을 뛰어넘어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창길(자연대 85) 동문은 제 4 편 ‘인간세(人間世)’에서 심재(心齋, 마음을 비우는 준비)의 중요성을 다뤘다. 그는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유용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저 내면을 비우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심재를 실천하라는 장자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마음의 준비는 혼란과 소음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덕목으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임을 알렸다.

이어 이민경(미대 85) 동문은 제 6 편 ‘대종사(大宗師)’를 발췌하여 발표하면서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않고 모든 변화를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큰 스승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장자는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큰 스승은 가르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도를 드러낸다”며, 살아있는 철학의 의미를 덧붙였다. 말로 설

명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깨달음의 경지로, 깊은 감명을 주었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김명혜(미대 78) 동문은 외편과 잡편 속 일화를 소개하며, 장자가 아내의 죽음을 자연의 한 순리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설명했다.

“장자는 처음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죽음을 계절의 흐름처럼 바라보고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했다. 이는 생과 사를 자연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일화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오늘날의 많은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응남(농대 70, 변호사) 동문은 외편 ‘달생(達生)’에 등장하는 ‘싸움닭 기르기’ 이야기를 통해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덕이야말로 온전한 경지”라며,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오래된 지혜를 이 일화가 잘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는 겉치레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젊음, 상실, 그리고 회복

토론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푸르른 자연 속에서 가든 BBQ 런치를 함께 나누며, 식사와 대화가 어우러진 따뜻한 분위기를 즐겼다. 디저트를 곁들인 후에는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 대한 독후감을 서로 나누며 문학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젊은 날 누구나 울창한 숲속의 나무처럼 고독 속에서 사랑과 꿈, 그리고 정든 사람들을 차례로 잃어 가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 이 소설은 그러한 상실과 재생의 메시지를 담아 시대와 장소를 넘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감상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각자 인생의 한 순간을 떠올리며 작품에 담긴 감성을 공유했다.

회원들은 하루 종일 이어진 깊은 사색과 토론을 마무리하며, 다음 정기 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여름 7월의 짙은 녹음 속, 그들은 새로워진 마음을 안고 다시 뉴욕으로 향하는 하이웨이를 천천히 달렸다.

글=신응남 15대 미주동창회장

## 장자의 변화와 초월, 하루키의 상실과 재생을 주제로

## 커네티컷 김명혜 동문 자택에서 열린 철학·문학 토론



나의 건강 관리 노트

# 손자들에게 오목 가르치고 피어난 웃음



정해민 (법대55)

사람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내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술로 인하여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집안 식구 특히 부인과 딸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어 미안한 마음이 크다. 그래서 정신만이라도 그렇게 망가져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심정으로 약 10년 전부터 나름대로 그에 대한 노력의 노력으로 시도하고 있다. 내가 정신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 1. SUDOKU Puzzle game

일간 신문지상 등에서 익숙한 것인데 처음에는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나는 경력이 10년 정도 되어 이제는 ChatGPT 에 의뢰해 만든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실력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반스앤 노블 등 서점에서도 책을 구할 수 있다.

### 2. 컴퓨터 배우기

양인회 동문이 타게하기 전까지는 뉴욕 골든클럽의 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실이 운영되었고 완성한 작품을 “뉴욕에서 만나요”카페에 올리는 등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고 또 작품을 만들고 하여 재미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았다. 지금도 외부강사의 프로그램은 계속하고 있으며 또 우리 회원들도 다수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손자와 오목을 두고 있는 정해민 동문 (왼쪽)

### 3. 손자들과 오목(五目) 두기

약 2년 전에 손자들에게 오목을 가르치고 가끔 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내가 거의 이겼지만 이제는 4:3 또는 3:4 로 막상막하의 실력이 되었다. 지금도 그들이 방학(Break)으로 집에 오면 가끔 “할아버지 오목 두실래요?”해서 두곤한다. 요즘 세상은 젊은 층과 언어 장벽

등 이유로 소통이 어려운 세상인데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소통도 하고 또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 4. 손자들에게 한글 가르치기

손자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2년 전에 그들에게 난생 처음 한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 가족이 한국어 행을 갔다 온 적이 있다. 가기 두 달 전쯤 내가 Easy Korean(쉬운 한글)이라는 것을 매일 한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 초보적인 대화 중심 한국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안다. 노년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은 인지 능력,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래는 실천 가능한 주요 훈련 방법들이다.

1. 인지 훈련(두뇌 운동) = 퍼즐과 게임: 스도쿠(SUDOKU), 크로스, 워드(Crossword), 체스, 메모리 게임 등 / 새로운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 외국어, 그림 그리기 / 독서와 글쓰기: 독서 후 요약하기, 일기 쓰기, 에세이 작성

2. 정서 훈련 = 마음 챙김 명상(Mindfulness) /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세가지 적기 / 정서 표현 훈련: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기

3. 신체활동 = 규칙적인 운동: 걷기, 요가, 태극권 등은 뇌기능과 기분 개선

4. 생활 습관 관리 =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뇌건강과 기분 조절에 매우 중요 / 건강한 식단: 오메가 3, 황산화 식품, 충분한 수분 섭취 / 의료적 관리: 치매 조기 진단,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기적 검진

을 가르친 적이 있다.

인사말, 자기소개, 매점에서의 대화 등 여행에 필요한 것을 가르쳤더니 이제는 제법 할머니와 기초적인 대화(의사 소통) 할 정도가 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이만하고 다음은 여러 종류의 단련법을 소개하니 그 중에서 자기와 맞는 것을 한 두가지 택하여

단상과 사유

# 앤드루 존슨-미국 첫 대통령 탄핵 재판



이회백 (의대55 입학)

미국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재선 러닝메이트로 조선 때 부통령이었던 메인 주 상원의원 해니벌 햄린(Hannibal Hamlin)을 버리고 테네시주 민주당 상원의원 앤드루 존슨(Andrew Johnson)을 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1865년 취임하자마자 링컨이 암살당해 존슨이 제 17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존슨 대통령은 링컨과 반대되는 남부를 옹호하는 정책을 써서

북부 공화당 의원들과 마찰이 심했다.

존슨은 링컨의 각료를 이어받았는데 그중 전쟁장관 Edwin Stanton 과의 대립이 가장 심했다. 존슨이 각료를 해임하려는 기미를 알아차린 국회는 주요 공직자를 교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Tenure of Office Act”를 통과시켰다. 존슨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는 다시 3분의 2 이상의 표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존슨은 이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여 국회 동의 없이 전쟁장관을 해임시켰다. 존슨의 정책에 반감이 컸던 공화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탄핵을 제기했다. 이때 상원은 전부 54명이었는데 공화당이 45명, 민주당이 9명이었다. 54의 3분의 2는 34라 공화당 의원만으로도 통과가 충분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 9명과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해 33대 17 한 표 차로 부결되었다.

인기없는 대통령인데다 압도적으로 반대당의 의원수가 많은데도 탄핵이 안된 이유는 이때는 의원들이 과당적으로, 인기에 의해 투표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표한 캔사스의 초선 의원 Edmund Gross 는 자기당의 이해에 반해 더욱이 자기 선거구민의 요구에 반해 투표하면 자기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 탄핵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다 낙선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후회하지 않았고 자기가 한 투표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 이 법은 60년후인 1927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이 이야기는 John F. Kennedy 의 저서 “Profiles in Courage”에 자세히 적혀있다.

지금 같으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야권이 300명중 192석인데도 여당이 뿔뿔 뿔뿔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앞서 말한 “Profiles in Courage”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인기를 쫓지 않고 “양심”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Taft-Katsura 비밀 협정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William Howard Taft 의 아들 Robert Taft 상원의원은 2차 대전 후의 Nuremberg 전범재판은 승전국이라고 해서 패전국에게 Ex post facto 를 범하는 재판이라고 반대함으로써 대통령이 될 기회를 차버렸다.

Ex post facto 란 당시에는 위법이 아닌 것을 후에 만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금하는 법 원칙을 말한다.

이런 양심적인 정치인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삶의 향기, 이야기들

# 찜질방 불가마 속에서 엄마를 만나다



한정민 (농대농과87)  
상담학 박사 · 관계치료사

3년 전쯤 '이마고관계치료 컨퍼런스'의 통역자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주한 오피스텔 빌딩에 작은 목욕탕이 있었다. 바쁜 일정 중 짬을 내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경험은 몸과 정신에 청량제가 되어주었다. 목욕의 참맛을 알고 난 후 미국에 돌아와서도 몸이 찌푸둥하거나 피곤할 때면 인근 찜질방을 찾아 자기돌봄을 챙기게 되었다.

지난달 한국 방문 중에도 매주 찜질방이나 온천을 찾아 쉬를 누렸다. 오래전 한국에서 처음 찜질방을 갔을 때 느꼈던 어색함과 문화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운동장같은 넓은 곳에 삼삼오오 널부러져 자거나 쉬는 모습이 신기하고 생경했다. 이제는 워싱턴 지역에도 찜질방이 많이 생겼고,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은 걸 볼때, 한류 열풍이 K-pop, 화장품, 영화, 드라마 및 문학을 넘어 목욕문화까지 퍼짐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집에 목욕탕이 변변치 않던 70-80년대에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목욕과 관련된 여러 기억들이 있으리라. 냉탕에서 놀던 나와 여동생을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중학생이 되고 몸에 2차 성징이 나타난 후 변하는 신체가 낯설고 창피해서 대중탕 가는걸 멈

추었고 23살에 도미했다. 그러니 한국 방문 때 공중 목욕탕을 찾을 생각은 아예 없었다. 그러던 중에 찜질방이 생겼고 호기심에 30여년 만에 다시 찾은 대중탕은 여전히 어색했다.

한달 전 한국 방문 중에 제부도 근처 사는 친구네서 하루밤을 묵었다. 다음날 친구는 출근했고 나는 읍내의 작은 목욕탕을 혼자 찾았다. 소박한 시골 목욕탕에는 찜질방 대신 황토로 만든 불가마만 있었다. 에스키모 이글루를 닮은 불가마는 70-80도가 넘어서 쪼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했다. 가마니가 깔린 바



닥에 눈을 감고 앉아 들숨 날숨을 천천히 호흡하니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 적외선이 방출되는 뜨거운 공기 속에서 나를 감싼 거적이 주는 안도감이 마치 엄마 자궁 속의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그때 문득 40년 전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목욕탕에서 친구 만나는걸 좋아하셨다. 누구든 늦어도 목욕을 하고 있으면 되니까 기다릴 필요 없어서 좋다고 하셨다. 특히 거적을 쓰고 들어가는 불한증막을 갔다온 날은 "참 시원해서 좋았다"며 거기서 구운 계란을 갖고 오셨다. 어린 나는 "왜 그렇게 뜨거운 곳에 거적까지

쓰고 들어가는지, 어떻게 시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됐지만 엄마가 가져온 구운 계란을 기다리곤 했다.

그런데 40여년 후 불가마 속에 거적을 쓰고 앉아있던 내가, 그 옛날 불가마를 좋아하던 엄마를 만난 것이다. 너무도 뜻밖의 조우였다. 내가 50살이 넘어 뒤늦게 목욕과 찜질방의 맛을 즐기게 된 것이 내 몸 속에 아직 발현되지 않았던 엄마의 잔재와의 연결이란 말인가?

나는 엄마랑 그렇게 가깝거나 친하지 못했다. 엄마에게는 공부를 잘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 다

난 것이다. 목욕에 끌리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내 세포 안에 엄마가 심어놓은 엄마의 흔적이 나의 깊은 곳과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한참을 울었다. 참 오랫동안 엄마가 그리웠다. 지금 살아계시면 좋은 한증막을 찾아 전국을 함께 여행할텐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욕이나 찜질방 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거나 낯설지 않은 엄마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다. 엄마의 육체는 40년 전에 떠났지만 나의 몸안에 엄마랑 함께 즐기는 부분이 엄마를 가깝고 친근

“고 3졸업 즈음 세상을 떠난 친하지 못했던 엄마 한증막 갔다오면 “참 시원하다”며 좋아했는데... 40여년 지나 한국 시골 목욕탕 불가마에 앉아 그녀를 떠올리며 ‘내 안의 엄마’를 느낀다”

행히 나는 어린시절 엄마의 자랑이 될만큼 공부를 잘했다. 그러나 아는 문제를 틀렸거나 시험을 못보면 손바닥을 맞거나 크게 혼났기에, 엄마를 떠올리면 무서웠고 '수'를 못받을까봐 걱정과 불안이 높은 아이였다. 그러다보니 중고등학교 때는 독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며 친해질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 고 3졸업과 함께 엄마는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다.

그랬던 내가 가마니를 뒤집어 쓴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엄마를 만

하게 느껴지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피할수 없는 슬프고 고통이다. 그러나 '상실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는 '사랑하던 사람이 즐겨하던 그 일을 내 삶에 계속 해나가는 것은 애도 과정의 치유과정'이라고 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겨진 화초를 키우는 일, 또는 함께 산책하던 길을 계속 걸으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 등 떠난 이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내 삶에 살아있게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떠난 사람과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인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는

미주 전역에 계신 동문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는 소통의 장입니다.

앞으로도 미주동창회보가 미주 전체 동문을 하나로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부의 소중한 이야기와 활기찬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 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a.org](mailto:news@snuuaa.org)로 보내주시시오.

[news@snuuaa.org](mailto:news@snuuaa.org)

## 조재성의 도시공학 노트



조재성  
(공대건축학과 77)

## 두 도시의 기억: 서울과 LA를 걸으며

170년 전,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에서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 런던과 파리를 비교하며 격동하는 시대정신을 포착했다. 그로부터 먼 시간이 흐른 오늘, 나 역시 두 도시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비교해 본다. 하나는 나의 고국, 서울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현재, 이민자의 삶이 이어지는 미국의 도시, 로스앤젤레스(LA)이다.

과거의 도시 서울과 현재와 앞으로의 삶도 이어질 LA는 나의 삶의 연속성과 편안함, 충족감같은 인간적 욕망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서울 중심부 무교동, 다동 골목길을 배회하던 그 젊은 날이 내게는 여전히 선명하다. 음악 다방에서 흐르던 새로운 미국 팝송 음악, 첫사랑과 짧은 시선을 나누었던 공간, 단골 만화가계에서 새 책이 나오

길 기다리던 유년시설의 설렘 까지. 그러나 그 기억의 장소를 찾아 고국을 다시 밟았을 때,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다. 고향같은 편안함으로 기억되는 그 장소에 초고층의 복합 업무용 오피스텔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널찍하게 뚫린 대로로는 내가 닳도록 걷던 골목길의 자취를 삼켜버렸다. 그곳에 분명 무언가 있었는데,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시는 기억의 외투를 벗어버렸고, 나는 시간 밖으로 밀려난 채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있어야 했다.

미국 땅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LA. 이민자들에게 LA는 단순한 거처가 아닌 또 다른 ‘삶의 중심’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는 종종 유사한 상실을 경험한다. 다운타운의 초고층 현대식 건물 사이의 소형 광장에 앉아있노라면 이곳이 시민의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기업의 자본가치를 상징하는 건축물과 조형물로 구성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자본의 과시를 위한 전시장이 된 것이다. 그곳은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텅 비어있고 외로움이 공명치는 것 같다. 낯선 타위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민자의 삶은 외로움을 되새기며 자리 잡는다.

서울은 6.25 동란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온

도시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서울은 현대성의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왔다. 이제는 거주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제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아우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무교동이나 강남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 정비 차원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스스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편 LA는 일찍부터 자동차 중심의 광역화 도시로 확장되어 왔다. 교외화가 두드러졌고, 도심의 기능은 점차 쇠퇴했다. 시는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낡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 초고층 아파트로 전환하고 퍼싱스퀘어 같은 공공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보행자 중심의 도심 재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도시의 생명력을 되찾는 일인지, 아니면 공간을 덧칠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서 나는 도시 역사가 루이스 멤포드를 떠올린다. 그는 “도시는 인간 생명의 유기적 발전을 담아도시 공간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멤포드에게야 한다. 역사의 층위와 기억이 도시는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망, 공존의 리듬, 그리고 세대 간의 기억을 품은 생명체였다. 그런 점에서 그가 이상으로 삼았던 인문학의 고향 플로렌스의 시뇨리아 광장은 중세 도시의

‘살아있는 심장’이었다. 거기엔 상품 거래를 위한 시장이 있었고, 공개재판이 열렸으며, 광장 중앙에서는 축제가 펼쳐졌다. 오늘도 시끄러운 장 마당이 서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르네상스 시대 광장이 주는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 정치와 종교,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지던 그곳은 도시 전체의 자화상이자 집단 기억의 무대였다.

서울과 LA의 재개발은 효율성과 미관에 초점을 맞추어나머지,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지워버리고 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과거를 잃어 버리고, 사회에서 탈락한 홈리스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도시는 단지 건물이나 도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골목길, 그곳을 지나던 이웃들의 표정, 세월이 쌓인 공간이야말로 도시의 진짜 힘이다. 최신식 고층 건물만으로는 도시의 품격도, 정체성도 답을 수 없다.

나는 서울과 LA를 걸으며 묻는다.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사라진 장소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시가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재벌의 딸’이라는 이름의 무게

부모가 유명하면 자녀도 덩달아 유명해진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Famous for being famous’라 한다. 말 그대로 ‘유명해서 유명’ 사람. 다만 이 표현에는 대개 약간의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할리우드의 사고뭉치’ 패리스 힐튼이다. 힐튼 호텔 창업 가문의 장녀였던 그는 뉴욕 맨해튼의 가톨릭계 명문인 성심여고(Sacred Heart)를 다녔다. 이 학교는 케네디 가문의 여성들이 주로 다녔고, 팝스타 레이디 가가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

그 당시 패리스가 거주하던 곳은 뉴욕의 전설적인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 미국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이 호텔에는 후버, 아이젠하워 등 전직 대통령들이 여생을 보냈고, 맥아더

장군 부부도 전망 좋은 펜트하우스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한국 대통령들도 유엔 총회 참석 시 이곳에 묵는 게 관례였다.

그 호텔의 오너 딸이었던 패리스는 말 그대로 ‘수퍼 갑’이었다. 학교 등교 시 호텔 직원들이 줄을 서 인사를 하며, 방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업원을 무릎 꿇리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았다.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그저 참을 수밖에.

졸업 후 패리스는 단박에 연예계 스타가 됐다. 리얼리티 쇼 ‘심플 라이프’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방송국 측은 힐튼 호텔이 주요 광고주라는 이유로 마지못해 패리스에게 진행을 맡겼다. 노력 없이 얻은 자리였다. 할리우드에서는 전형적인 ‘famous for being famous’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부러움보다는 냉소와 경멸이 섞인 말이었다.

평범한 가정 출신 인물이 같은 스타들을 일으켰다면 감옥에 갔을 일. 하지만 패리스는 오히려 더 유명해

졌으니, 결국 ‘갑’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몇 해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도 유사한 맥락이다. 대한항공 총수의 장녀였던 부사장의 갑질은 비행기를 되돌릴 만큼 심각했다. 수백 명의 안전을 책임진 기장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회항한 건 이례적이었다. 자녀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부모라도 과감히 손을 떼야 했던 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한국 재벌가 가운데 ‘부모 덕분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실력으로 인정받은 인물도 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손녀, 이미경 동문(생과대 77)이 대표적이다. CJ 그룹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총괄하는 그는 얼마 전 USC 영화 예술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자로 초청받아 졸업생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USC는 스타워즈 제작자 조지루카스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인을 배출한 명문 대학이다.

이 동문은 연단에서 서울대 입학 당시를 회상했다.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절반 이상이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요. 그 동기들이 (고액) 과외 없이 혼자 공부해 들어온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 나는 너무 작게 느껴졌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는 패리스 힐튼이나 ‘땅콩 부사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유명한 집안 출신이지만, 그것이 자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던 것.

이 동문은 지난 5월, 미국 이민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앨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남가주에 거주하며, 할리우드에서는 ‘미키(Miky)’라는 이름으로 존경받는 영화 제작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고문·문리대 66)

# 이재명 정부 첫 조각...총리·장관·수석·차관 등 동문 40 명



## 사회대 출신 17명으로 가장 많아, 법대는 6명

새 정부가 최근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19명의 장관 중 8명이 동문이다. 4번에 걸쳐 진행된 28명의 차관 인사(대통령실, 감사원 등 제외)에서는 18명의 동문이 임명됐다.

이번 내각 인선에서는 김민석(사회 82)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며 서울대 동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학생운동과 의정 활동을 아우르며 쌓아온 정부 감각과 균형감 있는 국정철학으로 중책을 맡게 됐다.

정동영(국사 72) 의원은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남북관계 전문성과 오랜 정치경력을 바탕으로 다시 정부 요직에 복귀했다. 정성호(사법 81)·윤호중(철학 81) 의원은 각각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며 여권 내 중심축 역할을 예고했다.

경제부처의 경우 구윤철(경제 82)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정은경(의학 83)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 19 대응의 중심 인물로 다시 중책을 맡게 됐다.

김정관(경제 87)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환경대학원 89) 현 장관이 유임돼 정책 연속성이 강조됐다.

새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에도 동문들이 중용됐다. 위성락(외교 73) 국회의원은 안보실장으로 임명되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섰고, 김용범(경제 81)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실장을 맡았다.



송기호(무역 81) 변호사는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돼 국정 전반의 조율 역할을 하게 됐다. 홍보소통 분야는 이규연(농학 81) 전 JTBC 대표가 홍보수석으로 기용됐으며, 하준경(경제 87) 한양대 교수는 경제성장수석, 하정우(컴퓨터공학 97)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과격 발탁됐다.

법무 및 조정 분야에서는 봉욱(사법 84) 변호사가 민정수석을 맡고, 윤창렬(외교 85)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류덕현(경제 88) 중앙대 교수가 재정기획보좌관에, 최희덕(외교 90) 중국 주선양 총영사가 외교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장관급 인사에서도 서울대 출신의 존재감이 뚜렷했다. 김상환(사법 84)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고, 함께 오영준(사법 88)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정책 비전 수립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한주(식물 75)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인류 86) 전 경남지사가 각각 임명됐다.

7월 13일까지 진행된 차관급 인사에서는 28명 중 18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 서울대, QS 세계대학순위 38 위

작년보다 7계단 하락

서울대가 6월 19일 발표된 QS 세계대학순위에서 세계 3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했지만, 국내 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이다.

QS 세계대학순위는 전 세계 1500개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 △논문 피인용 수 △졸업생 평판 △외국인 교수·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IRN) △취업 성과 △지속가능성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산정된다.

서울대는 취업 성과 지표에서 세계 11개 대학 중 하나로 100점 만점을 받았고, 졸업생 평판도(99.1 점, 세계 24위), 학계 평판도(99.7 점, 세계 18위)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국제화 지표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이종수(자원 92) 서울대 연구처장은 “국제화 지표의 핵심인 외국인 구성원 비율과 국제 공동연구 지수(IRN)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외국인 교수 비율”(801위)과 “외국인 학생 비율”(622위) 등 국제공동연구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네트워크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해외 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화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순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 대학들의 가파른 상승세다. 싱가포르국립대는 세계 8위로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고, 홍콩대(11위), 베이징대(14위), 칭화대(17위), 푸단대(30위) 등도 서울대보다 앞섰다. 특히 중국 대학들은 ‘교수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미국 주요 대학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연구 영향력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대는 해당 지표에서 150위권에 머물렀다.

### QS 세계대학순위

2025	2024	대학(국가)
1	1	MIT(미국)
2	2	임페리얼칼리지런던(영국)
3	6	스탠퍼드대(미국)
4	3	옥스퍼드대(영국)
5	4	하버드대(미국)
6	5	케임브리지대(영국)
7	7	취리히연방공대(스위스)
8	8	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
9	9	UCL(영국)
10	10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미국)
11	26	홍콩대(홍콩)
14	17	베이징대(중국)
17	19	칭화대(중국)
30	39	푸단대(중국)
32	36	홍콩중문대(홍콩)
36	33	도쿄대(일본)
38	31	서울대(한국)
50	56	연세대(한국)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캠페인>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중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 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 57)  
뉴욕-조상근 (법대 69)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조지아-허지영 (문리 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김일영 (의대 65)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남가주-박중수 (수의 58)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남가주-성낙호 (치대 63)  
남가주-심화섭 (약대 61)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남가주-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하기환 (공대 66)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남가주-한홍택 (공대 60)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네바다-정상진 (상대 59)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뉴욕-오인석 (법대 58)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미시간-박용화 (의대 52)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북가주-전혜경 (문리 67)  
샌디에고-이면기 (공대 64)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시카고-조규승 (문리 72)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워싱턴 DC-이태영 (법대 60)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손재옥 (가정 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김병연 (공대 68)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남가주-이종도 (공대 66)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뉴욕-김현중 (공대 63)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 DC-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 DC-배성호 (의대 65)  
워싱턴 DC-최재귀 (미대 63)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조지아-임수임 (공대 62)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황효숙 (사대 65)

**중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용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나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근희 (의대 64)  
정희영 (치대 56)  
정동구 (공대 57)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황해룡 (공대 52)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종률 (사대 51)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용허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옥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홍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취월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대 65)  
이윤주 (상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강여국 (수의대 67)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고대 60)  
조봉환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대 65)  
진성호 (공대 64)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박현아 (공대 88)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중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중민 (공대 64)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트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타**

윤제중 (농대 55)



\*1,2 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 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2025.7.1~2026.6.30**

<b>남가주</b> 김수영 (사 57) 김택수 (의 57) 나승욱 (문 59) <b>노명호 (공 61)</b> 이채진 (문 55) 장윤희 (사 54)	정명자 (사 56) 정 황 (공 64) 최규황 (법 69) <b>뉴욕</b> 강에드워드 (사 60) 손진태 (약 67)	김종원 (가 58) 신응남 (농 70) 선종철 (의 57) <b>양성택 (상 66)</b> 양명자 (사 63) 이문봉 (미 76)	<b>이상무 (의 56)</b> 조태환 (상 56) <b>미네소타</b> <b>황호숙 (사 65)</b>	<b>북가주</b> 신규영 (공 64) 위창호 (의 67) <b>최경선 (농 65)</b> <b>시카고</b> 홍청일 (약 57)	<b>워싱턴 DC</b> 박홍우 (문 61) 우제형 (상 54) <b>윤석진 (문 64)</b> 이준영 (치 74) 최귀재 (문 63)	<b>워싱턴주</b> 이길송 (상 57) <b>필라델피아</b> 고석규 (치 65)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b>일반후원금</b> 남가주 김상순 (상 67) 300 윤석철 (상 60) 2,000	<b>뉴욕</b> 강에드워드 (사 60) 700 신응남 (농 70) 500	<b>미네소타</b> 김권식 50,000	<b>지부 장학금 후원</b>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 68) 10,000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 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mailto:contact@snu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2024/6, 1년/1차) <input type="checkbox"/> \$240 (2024/7~2025/6, 1년/1차) <input type="checkbox"/> \$240 (2023/7~2024/6, 1년/1차) <input type="checkbox"/> \$48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NUAA Scholar Program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Che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웹사이트 광고비	일반 광고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b>SNUAA USA</b>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input type="checkbox"/> \$ 500 (1년) <input type="checkbox"/> \$ 1,000 (1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뒷면 표지)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일반)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400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명	업소 주소	전화번호		
Check #	Date	Signature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2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os Angeles,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reet

Los Angeles, CA 90010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  
Diamond Bar, CA 91765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ree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T: 213-380-5060 (LA, CA)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근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siloamchung@gmail.com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os Angeles,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의료/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nu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nu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운송/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oa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ree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nu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ree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VA·MN**

**기계/기술/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재정/보험/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 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 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 Seoul Korea |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oad  
 Buf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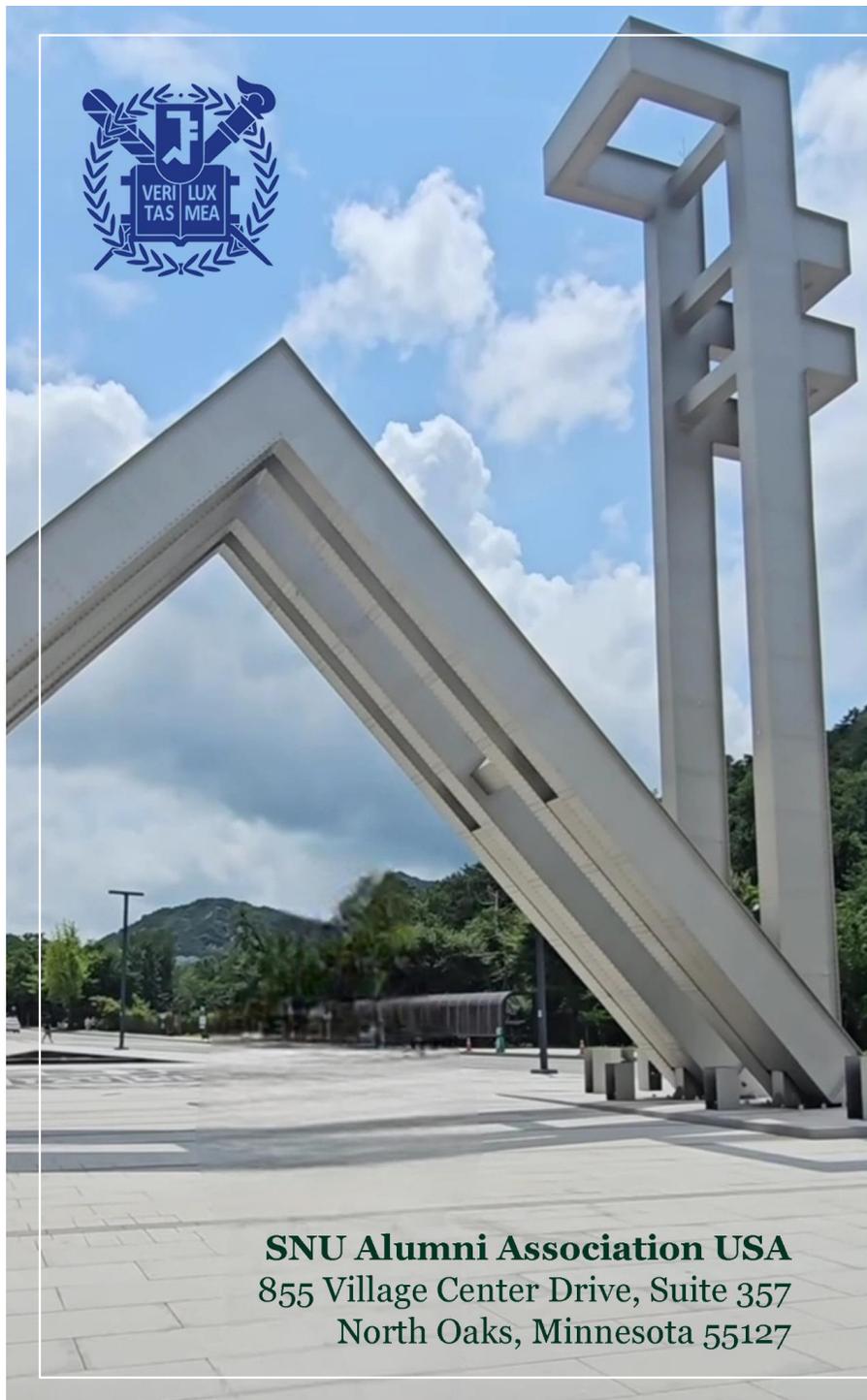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contact@snuuaa.org**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ADVERTISE  
 WITH US**

## 제 18 대 미주동창회

### 회장 황호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윤(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호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레(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최승희(사회대),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편집디자인: 오은아

###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윤(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 감사

김영석(공)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unaa.org

<b>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b> 회장 채규황(법대 69) T: (818) 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양수진(간호대 80) T: (714) 335-2148 회장 sujinyang2011@gmail.com	<b>캐나다 밴쿠버 (Jan~Dec)</b> 송태영(자연대 84) T: (778) 866-8312 chris.van.bc@gmail.com	<b>캐나다 앨버타 (Mar~Feb)</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b>미네소타 Minnesota (Jan~Dec)</b>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b>미시간 Michigan (Jul~Jun)</b>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b>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b> 김법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b>오레곤 OR/ID (Jan~Dec)</b> 박희진(농대 78) T: (503) 648-0775 hjpark@flonomix.com	<b>알래스카 Alaska (Jan~Dec)</b>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b>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b> 원덕수(공대건축학과 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b>시카고 IL/IN/WI (Jan~Dec)</b>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 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이동균(공대 75) T: (847)644-4807 회장 dlee1917@yahoo.com
<b>샌디에고 San Diego (Jan~Dec)</b> 박상호(치대 80) T: (516) 776-0449 nomacast@gmail.com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앨버타      캐나다			<b>뉴욕 NY/NJ (Jul~Jun)</b> 김병순(사회대 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
<b>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b>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b>워싱턴 DC DC/MD/VA/WV (Jan~Dec)</b> 남욱현(경영대 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
<b>오하이오주 Ohio (Jan~Dec)</b>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b>커네티컷 CT</b> 박성훈(자연대 91) T: (781) 812-8778 imtenor@hotmail.com			
<b>하와이 Hawaii (Jul~Jun)</b>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b>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b> 김영석(음대 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b>북텍사스 LA/Dallas (Jan~Dec)</b> 이선애(경영 85) T: (469) 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b>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b>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b>중부 텍사스 Mid-Texas</b> 이학호(수의대 59) T: (512) 487-4390 Hakho3830@gmail.com	<b>유타 Utah (Jan~Dec)</b>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b>조지아 GA/AL/MS (Jan~Dec)</b> 최화진(음대 85) T: (828) 242-7150 hwajinmdma@gmail.com
<b>휴스턴 Huston (Jan~Dec)</b>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b>애리조나 Arizona</b>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b>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b> 이주현(미대 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b>플로리다 Florida (Jan~Dec)</b> 윤기향(법대 65) T: (561) 962-5185 yuhn@fau.edu	<b>캐롤라이나 SC/NC/KY (Jan~Dec)</b> 정신희(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b>테네시 Tennessee (Jan~Dec)</b>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 Nanodyne

Measurement Systems, Inc.

*World leader in replacement  
microscope illuminators by  
microscope manufacturer*



18  
Products



49  
Products



29  
Products



40 Products  
and many more!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18대 황효숙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Hyosook Hwang, CFO**

**Nanodyne Measurement Systems**

info@nano-dyne.com  
sales@ nano-dyne.com  
651-323-8592

**www.nano-dyne.com**



B&L Nicolas



Ring Light



Nikon Labophot



Olympus BX50/51



Red Wing, Minnesota, USA  
 Developer: IPS Solar  
 Engineering: EVS, Inc.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18대 황효숙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김권식 대표 (공대 61)  
 dkim@evs-eng.com  
 612.961.6878

[www.evs-eng.com](http://www.evs-eng.com)